

경제 민주화보다 일자리가 급하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등 여야의 대선주자들은 ‘경제민주화’를 5개월 남짓한 대선의 핵심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용어는 1987년 6·29민주화직후 혼란스러웠던 개헌정국에서 전문가들의 충분한 검토와 범국민적인 논의없이 헌법에 삽입됐다. 이 용어를 헌법에 등재시킨 인사는 김종인 전 청와대경제수석(노태우대통령)으로 당시 국회헌법특위 경제조항 분과위원장이었다.

무책임한 ‘재벌때리기’

문제의 헌법 경제민주화조항(119조 2항)은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시장경제원칙’을 천명한 119조1항을 보완하여 ‘시장지배와 경제력남용을 방지하기위해’ 경제민주화의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소위 ‘균형성장과 소득의 적정 분배’를 겨냥한 것이다. 김수석은 노사를 대표하는 한국노총과 경총의 견해를 절충하여 이렇게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현재 새누리당 박근혜캠프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확실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대선주자들이 거의 하나 같이 경제민주화를 함창하고 있다. 소득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현재의 경제상황에 딱 맞는 정치처방이다. 유권자의 구미를 당기게 하니 정치꾼들에게는 안성맞춤의 슬로건이다. 그러나 이상적인 표적이다. 새누리당의 김문수경기지사만이 “성장을 둔화에 맞서기위해 기업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막는 규제책을 내놓아야 할때다”고 현실적 처방을 선택했다. 그는 “경제민주화를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그것이 대기업 때리기 라면 반대한다”고 했다.

경제민주화는 분명 지향해야 할 목표이나 우리정치의 수준이나 국민들의 뿌리깊은 반재벌성향으로 봐 대권주자들이 입을 여는 순간부터 재벌때리기로 전락될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의 사실상 대권후보자인 박근혜후보가 반기업적인 경제민주화 문제를 먼저 제기, 선거쟁점을 선점하고 나온 것은 의외다. 기업측으로서는 대충격이다. 종래의 성장경제정책이 양극화를 불러왔다는 그의 비판은 복

지에로의 경제정책 전환을 시사한다. 무상복지증대 등 무책임한 포퓰리즘경쟁 촉발이 우려된다. 대기업의 법과 시장질서위반에 대한 단호한 제재 등 결연한 의지를 보인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일감몰아주기,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지원, 납품단



이재승

·분회 회우
·전 한국일보 논설위원

소득자에게 세금 폭탄을 퍼붓겠다는 것이다. 상위소득 1%를 털어 하위소득 99%를 먹여살리겠다는 ‘1대99’의 선거전략은 있는자를 죄인시 하는 전형적인 공산주의 수법이다. 있는자와 없는자를 싸움불여 국민을 상호증오하고 분열케하는 초기공산당의 전형

자본이 부족했던 우리기업으로서 기존사업확장이나 신규사업진출에 이를 활용해 왔다. 일본대기업에서 전수한 것인데 국제적으로 용인되고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 순환출자를 풀려면 30조가 소요될 것이라고 한다. 세계정상의 국제기업이기도 한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는 한국경제의 대표적 기관차다. 국제재계에서는 말이 없는데 왜 때문에 국내정치권이 이들을 옥죄어주저않게 하려는가. 정치권이 득표에 미쳐있는 것은 이해가 간다. 아무리 그렇다해도 나라경제를 망칠 수야 없지 않겠는가. 정치권의 생각은 시대착오적이다. 유권자의 이성인 정치권의 광인을 몰아내야 할 것이다.

경제민주화의 문제는 출자문제와 비리·불법관행문제를 분리, 처리해야 한다. 출자는 더 이상 족쇄를 채우지 말아야 한다. 비리·불법문제도 기존의 법테두리내에서 엄격히 시행하면 된다. 필요한 경우에만 법을 보완하면 된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자리요 소득증대다. 일자리를 만들고 수출하는 것은 대기업이다. 대기업 때린다고 일자리가 나오느냐”고 했다. 그의 말이 옳다. 군계일학(群鷄一鶴)이다.

경제 이끌어갈 전략 필요

정치권은 공약의 기초를 바꿔야 한다. 여전히 우리의 최대현안은 일자리다. 불황을 돌파해야한다. 새시대의 경제안정성장기반을 새로 짜야한다. 기업 경쟁력의 제고는 변함없는 우리들의 현안이다. 중국에 추월당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시간이 없다. 좌파들의 분배놀음은 기업을 질식시키고 경제를 실추시킨다.

손경식 대한상의회장은 “대선주자들은 경제민주화는 얘기하면서 어떻게 경제를 끌고 가려는지는 말이 없었다”고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앞으로 세계경제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싸움이 아니라 구미(歐美) 자본주의와 신시장(중국·러시아·멕시코·인도) 국가자본주의등 자본주의 사이의 대결이라고 했다.

“경제를 어떻게 끌고 가려는가” 대선주자들은 이에 대답해야 한다. [K]

대선주자들 잘못된 공약 선택 좌파 분배놀음 경제 망칠 우려

가 후려치기, 골목상권침해, 기술침해 등 이한구 새누리당원내총무의 구체적 사례적시는 강도를 뒷받침했다 하겠다. 이 가운데서 눈이 가는 것은 민주당과의 차별화다. 박후보는 “민주당은 경제력남용보다는 경제력집중자체를 문제삼아 재벌해체로 가는 건데 그런식으로 막가지는 않겠다”고 했다. 지킬 볼 일이다. 평등주의를 전유물로 생각하는 민주당은 대목을 만난 것 같다. 이해찬 민주당대표는 “경제민주화에 당의 명운을 걸겠다”고 투지를 높였다. 문재인, 손학규, 김두관, 정세균등 민주당 경선후보들도 ‘재벌개혁’ ‘복지확대’ 등 목청을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새누리에 앞서 “경제민주화포럼”을 창립, 선거대전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다.

‘있는자’를 죄인시하는 수법

표적은 대기업과 소득 상위 1%계층이다. 재벌개혁은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순환출자금지, 지주회사행위규제강화 등 소유구조개편 압박과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근절 등 비리척결을 겨냥하고 있다. 관련법 9개법안을 이미 제출해 놓고 있다. 주목되는 부자증세방안은 최고 소득세율 적용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조정하겠다는 것인데 이미 국회에 내놓았다. 고

적인 계급투쟁방법이 선진국을 바라본다는 서울 한 복판에서 원용되고 있는 것이다. 수권정당이 되겠다는 민주당이 이 수준이다. 하기가 국기와 애국가를 거부하는 반국가적인 주사파가 국회에 진입한 나라이니 이해는 간다.

정치권의 이번대선 공약선택은 잘못된 것 같다. 경제민주화는 개념자체가 아직 이상에 머물러 있고 선거의 해에 여야정쟁유발의 기폭성만 커서 합리적 정책을 도출하기 어렵다. 대기업만 이 속죄양이 될 수 있다. 경제민주화의 과제가 현재 대선경선주자들이 제기, 논의하고 있는 수준이라면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개중에 상당수는 이미 도입, 실시됐다가 폐기한 것이다. 야당에서 버리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만 해도 헌법 119조2항(경제민주화)이 발효됐던 1987년에 실시됐으나 1997년에 폐지됐다가 2년뒤 부활됐고 10년만인 2009년 다시 퇴장된 것이다. 정권과 경제상황에 따라 죽었다 살았다 했다. 새누리의 박후보가 생색내면서 내놓은 신규 순환출자제도도 기업의 출자를 옥죄는 것이다. 이렇게 제약해서는 신사업이나 첨단사업투자는 어렵다는 것이다. 순환출자는 계열기업이 연이어 출자, 대기업이 계열기업을 늘려가는 편리한 확장방법이다.

‘부패와 싸우는 대통령’을 보고싶다

라디오에서 대통령 친형 수감 뉴스가 흘러나오자 택시 운전사가 툭 한마디 내뱉습니다. “이젠 사람들이 놀라지도 않아요. 매번 그러니까.”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가 다시 정권 실세(實勢)들로 만원이랍니다. 정권 창업 공신(功臣)들에 이어 대통령 친형을 비롯한 영포라인 3인방이 줄줄이 수감을 차더니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던 청와대 ‘문고리 권력’까지 그 뒤를 잇습니다. 이 ‘한때 실력자’들에게 돈을 주고 금괴를 쥐어주고 향응을 베풀 ‘회장님’들과 이들을 대리해 로비한 브로커들도 같은 구치소에 있습니다.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들이 감방 동기(同期)가 되어 함께 뒹굴고 있는 것이지요.

시민들 냉소와 체념

5년마다 되풀이되어온 풍경입니다만, 요즘 이 낯익은 풍경보다 더 섬뜩하게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 풍경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달라진 분위기입니다. 과거엔 이런 사건이 터지면 분노를 넘어 ‘어떻게 하면 부패 공화국의 오명(汚名)을 벗을 수 있을까’를 두고 답을 찾으려는 노력이 눈에 보였습니다. 되든 안되든 부패를 넘어설 길을 찾아내 그 길로 함께 가자는 공감대가 있었지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달라졌습니다. 택시 운전사가 보인 ‘냉랭한 체념’ 같은 공기가 이 사회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냉소와 체념은 부패보다 더 무섭고 치명적입니다. 이런 분위기를 그대로 놔두고 우리는 절대 부패공화국의 오명(汚名)을 벗을 수 없습니다.

이상득 전의원이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려 법원에 나타나자 한 저축은행 피해자는 그의 넥타이를 잡아채며 “내 돈 내놓으라”고 소리쳤습니다. 날 달걀을 던지고 물을 뿌린 사람들도 있었지요. 정부는 우리나라가 올해 세계에서 일곱번째로 ‘소득 2만달러와 인구 5천만명’의 선진국 클럽에 들어섰다고 자랑했습니다만, 다른 어느 선진국에서 대통령 친형이 이런 봉변을 당하면서 나라 망신을 시킵니까.

이 전의원은 77세입니다. 국회의원 6선에 당 3역을 역임하고 국회 부의장까

지 지냈습니다. 정부에 신고한 재산은 79억원에 이릅니다. 나이로 보나 경륜으로 보나 재산으로 보나 아쉬울 게 없을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두명의 대통령은 감옥에 가고 다른 두명의 대통령은 애지중지하

특별기고



홍준호

·조선일보 논설위원

대권주자들 표 모으기만 급급 주변비리 뿌리 뽑을 복안 뒷전

던 아들들을 재임중 감옥에 보내고 또 다른 한 대통령은 자살이란 극단의 선택을 한 걸 정치 현장에서 지켜본 사람입니다. 아쉬울 것도 없고 알만한 위치에 있던 이 전의원이 이런 험한 꼴을 당하니 사람들은 탄식하고 분노하다 낙담하고 체념하기까지 이르렀는지 모릅니다. ‘대한민국 권력의 별거벗은 모습’이 이 정도였는가 라면서.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만 탓할 일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부패는 청와대를 넘어 말단 기초자치단체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정계를 넘어 재계·법조계·언론계·학계·시민단체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습니다. 국제투명기구가 작년 12월 발표한 우리나라 부패지수(CPI·Corruption Perceptions Index)는 10점 만점(부패 제로)에 54점으로 조사 국가 183개국중 겨우 43위입니다. 부패지수를 산출하는 OECD 국가 34개국 중에서는 27위입니다.

그래도 윗물이 맑아야

그래도 역시 출발은 윗물입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습니다. 대통령 주변 권력이 썩었는데 나라가 깨끗해질 순 없습니다. 언론은 다음 대통령

이 되려는 이들이 대통령 주변 비리를 뿌리뽑을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계속 묻고 따져야 합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경선후보는 대통령 주변 비리를 감시할 특별감찰관을 국회 추천을 받아 임명하고 검찰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자는 안

문에 휩싸였는지는 새삼 거론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왜 정권마다 이런 일이 되풀이됩니까. 윗물을 바로 잡아 국가 기강을 세우는 일을 해야 하는 곳은 사정기관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 사정기관의 인사를 주무릅니까. 바로 정권 실세들이고 대통령 주변 사람들입니다. 공직사회와 재계는 대통령 주변의 누구 누구를 통해야 좋은 자리에 가고 기업의 이익을 지킬 수 있는지 잘 압니다. 정권이 겹으로 깨끗한 척 하지만 뒤편 누구누구가 돈을 받는다는 것도 이들이 제일 잘 압니다. 이들이 아는 걸 사정기관이 놓칠리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정권에서 대통령 주변 비리를 앞장 서 찾아내 정권 실세를 감옥에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정기관 책임자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눈치 없는 짓을 했다가는 제 목이 먼저 날아가기 때문이겠지요.

부패 씨앗 미리 잘라야

사정기관이 대통령 주변에 칼을 빼드는 시점은 대통령 힘이 빠진 뒤입니다. 거적으로 덮여두었던 권력형 비리의 썩은 냄새가 거적을 뚫고 나와 사방에서 진동하기 시작할 때이기도 하지요. 대통령이 뒤늦게서야 측근들이 저지른 일들을 알고 나서 충격을 받았다는 뉴스를 접할 때마다 한숨이 납니다. 사정기관을 이렇게 만든 책임은 대통령 말고 누구에게 있습니까.

부패에 제대로 맞서 싸우는 대통령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성급한 기대는 하지 않으려 합니다. 반(反)부패는 이번 대선정국에서도 경제민주화와 복지구호에 가려 뒷전에 밀려 있습니다. 권력형 부패는 대통령 발밑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유력 대선주자의 경우엔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부패와 제대로 싸우려면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가족의 이름으로, 측근의 이름으로, 사조직의 이름으로 다가오는 부패의 씨앗을 미리 속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여야 대선 주자들 주변은 온통 표를 모으는 일에만 급급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4]

이 시대 참 언론인을 찾습니다 2012 대한언론상 공모

시상일 추후공고

응모 요령

대한언론인회는 언론발전에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주는 2012년도 대한언론상 수상 후보자를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심사대상은 일간신문, 통신 방송 및 언론관련 단체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2011년 11월 1일부터 2012년 8월 31일까지 보도, 논평 및 언론학술 연구 분야로 합니다.

(수상자와 시상식 날짜는 10월 1일자 회보에 발표)

- 분야 : 1) 기획취재 보도 분야
2) 논설 논평, 언론학술 연구분야
- 대상 : 일간신문 통신 방송 등 언론사 및 언론관련 단체 또는 개인
- 공적기간 : 2011년 11월 1일부터 2012년 8월 31일
- 구비서류 : (개인) *이력서 *사진 2장 (명함판)
*세부 공적내용(A-4용지 2페이지 이내로 작성) 1부 *소속 단체장 추천서(A-4용지 1페이지 이내로 작성) 1부

(단체) 단체장 추천서 1부
*공적 자료 및 관련 사진 첨부

- 접수마감 : 2012년 9월 20일 오후 5시
- 시상일 : 추후 통보
- 접수처 :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프레스센터 1405호 대한언론인회 (우100-745)
전화 02)732-4797~8, 02)2001-7621
2012년 8월 1일

8·15광복 - 해방보다 건국의미 크다

앞으로 며칠 남지 않은 8·15를 우리는 광복절로 기념할 것이다. 그러나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념하는 광복절은 올해로 67회가 되는 것인지 64회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민적 이해나 합의가 없고 심지어는 관심조차 없다. 8·15가 무슨 날인지에 대해 그처럼 무관심해도 괜찮은 것인가.

48년까진 ‘해방기념일’

8·15는 두말할 것 없이 우리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날이다. 국권을 상실한 지 만 35년만에 맞은 해방의 환희와 감격을 무엇에다 비교 할 수 있었으랴. 하지만 해방이 곧 우리가 회구하던 광복, 곧 자주독립이 아님을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일이 필요하지 않았다. 일본군이 물러가게 된 우리 한반도는 38선을 경계로 남과 북으로 나뉘어 각기 미군과 소련군에게 점령되었고 일본을 패망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연합군, 특히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에 대해 가지고 있던 구상은 독립국가의 수립이 아니라 불특정 기간 동안의 신탁통치임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8·15가 단순히 해방기념일이 아니라 광복절의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선포되고 우리가 소련과 그 밖의 몇몇 공산주의 위성국가들을 제외한 만방의 인정을 받는 독립국가가 된 후부터였다. 우리가 갈구하던 광복은 “우리의 소원은 독립”이라고 노래 하던 그 독립을 의미하는 말이었지 단순히 일제로 부터의 해방과 그에 뒤따른 다른 외세에 의한 분할 점령은 아니었다. 우리가 독립국가로 광복에 대한 꿈을 달성한 것은 1948년부터이지 1945년 8·15는 아니었다는 말이다.

광복이 갖는 그러한 복합적이면서도 분명한 뜻이 희석되고 무시되기 시작한 것은 우리의 독립이 한반도 남반부에만 해당되는 절반만의 성공이었기 때문이다. 유엔의 감시하에서 인구비례에 따른 남북공동선거를 실시하여 통일된 민족국가를 건설하려던 우리의 계획은 소련의 반대와 방해로 북한에서 선거가 실시되지 못함으로써 좌절되었고 남북한에 각기 이념적 기반과 국제적 지지 세력을 달리하는 정부가 수립되는 정치적 분단으로 귀착되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광복은 일제치하의 독립운동과 1945년 해방, 1948년의 선거, 제

헌, 정부수립 단계를 거쳐 독립국가를 선포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음으로써 완성된 것으로 북한은 언제인가는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우리의 정치체제 속으로 흡수해야 할 국토의 절반 부분이었다. 반대로 북한의 입장에서 본다면 대한민국은 소련의 영향권에

특별기고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

가 왜 나라 없는 설움을 안고 살았으며 독립운동이 왜 필요했는가 반문할 수 있다. 최근에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국시로 하는 나라가 아니었으니 ‘자유’라는 말은 ‘민주주의’에서 떼어내야 되며 유엔이 대한민국을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한 것은 ‘한반도’ 전

전쟁이 물리적으로는 미미했던 우리 혁명의 동력에 큰 보탬이 되었지만 우리는 이념과 권력주체의 교체를 이루어 독립된 민주공화국으로 우뚝 서는데 성공했다. 역사상 처음으로 공화주의적 법치의 원칙, 시민의 기본인권과 자유, 그리고 남녀차별을 비롯한 모든 불평등 타파가 총체적으로 헌법에 명시되었을 뿐 아니라 노동하는 사람들의 권익과 국민의 교육권을 특별히 강조함으로써 우리 국민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한껏 발휘될 수 있고 자유민주주의가 복지국가식 사회민주주의 체제로 자연스럽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여지를 터 놓은 것이 대한민국의 제헌헌법이였다. 같은 민족이요 해방 당시, 아니 1970년대 초반 까지만 해도 남한 보다 유리한 경제적 여건에 놓여 있던 북한은 오늘날 국민을 먹여 살리지도 못하는 국제적 문제야로 전락한 반면 우리 대한민국은 남이 부러워하는 부국으로 떠오른 것은 남북한간 체제의 성격 차이, 곧 한편은 사람을 억압하는 체제요, 한편은 한껏 기를 펴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북돋아 주는 체제라는 사실로 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이다.

통일지상주의 폐해심각

1945년 당시의 상황으로는 우리 독립운동에 우호적이었고 히틀러를 패배시키는데 결정적 공헌을 했던 소련의 공산주의 체제의 미래에 대해 기대를 걸 만한 이유가 없지 않았다. 스탈린체제의 악랄한 성격에 대해서는 정보가 많이 차단되어 있던 상태였다. 그러나 이제 국제공산주의 체제가 스스로 파산을 선고한 이 마당에서 공산주의의 잔재 가운데서도 가장 저열한 형태로 전락한 북한을 도덕적, 정치적 도피처로 생각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통일지상주의자들이 낳은 역사왜곡의 폐해는 이제 용납할 수 없는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다.

이런 여러 정황으로 볼 때 1948년 8월 15일을 광복절로 또는 건국절로 또는 독립기념일로 제대로 기념하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건국을 가능케 해준 선열들, 3·1 운동당시의 독립투사들에서 건국대통령 이승만 박사에 이르기까지 모두를 기리고 감사하는 일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더 이상 등한시 할 수 없는 일이라 믿는다. [4]

48년 정부수립이 진정한 광복 北 역사왜곡 주장 바로잡아야

들어가는 공산주의 단일정부의 수립에 장애가 되는 우파 분파주의 집단에 불과한 것이었다.

1948년 8월 15일을 광복절, 건국절, 그리고 독립기념일로 보느냐 아니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 역사를 보느냐 아니냐의 문제이지 학문적 토론의 영역이 아니다. 건국대통령 이승만은 분명히 1948년 8월 15일을 광복절로 여겼다는 증거가 그의 연설문 원본에서 드러나며 정부의 입장도 50년대 초까지는 분명했다. 독립이 없는 광복을 생각할 수 없으며 따라서 1945년에서 1947년까지는 8·15가 해방기념일에 불과했던 반면 1948년부터는 진정한 의미의 광복절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종북좌파들 억지부러

남북한이 따로 정부를 선포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태극기와 8·15를 선택했다는 사실은 북한으로서는 매우 난처한 일이었으며 종북 좌파 계열의 학자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궤변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들었다. 그 중 하나가 1948년 건국을 강조하는 것은 1945년 해방의 의미를 희석시키고 독립운동 세력을 폄하하는 것이라는 이상한 주장이다. 심지어는 대한민국 건국은 1948년이 아니라 1919년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억지도 부린다. 그렇다면 우리

체에서가 아니라 선거가 치러진 남한에서만 그렇다는 이야기였다는 억지소리까지 나왔다. 국제정치적 배경은 물론 영어의 문맥도 가리지 못하는 무식의 소치가 마치 무슨 대단한 역사관련 학회들의 대표 이론인양 주장되기도 한다. 해방, 건국, 광복 등의 낱말을 둘러싼 이러한 논란과 혼돈은 크게 보아 분단과 6·25 전쟁이라는 참화가 낳은 부작용이다. 더 좁게는 왜 공산주의는 배격해야 하는 것인가를 도무지 알 수 없게 만들었으니 오히려 어린 학생들이 지하통로를 통한 저들의 선전선동에 무방비적으로 노출되게 만든 몽매적 반공정책과 오랜 기간에 걸친 민주화 투쟁에 대학생들의 힘이 소진되는 동안 발생한 거대한 지적 공백의 후유증이라 볼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후유증을 극복 하는데는 적지 않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극복되어야 하며 그 일은 해방, 건국, 광복 같은 낱말들의 의미를 분명히 가려내는 구체적 작업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 본다.

세계사적 맥락에서 볼 때, 1945년 해방에서 1948년의 건국으로 이어진 일련의 사건들은 미국의 독립혁명이나 프랑스 대혁명에 비견될 수 있는 독립혁명과 자유민주주의 혁명이였다. 독립정신과 민주공화국을 향한 갈망이 우리의 혁명 이데올로기였고 연합국들의 대일

의료비 지원규정 개정 대한언론인회 이사회 의결

대한언론인회는 지난 7월 13일 제 132차 이사회를 열고 2012년 상반기결산보고를 비롯, 몇 가지 사안을 토의 의결했다.

임원 18명이 참석 한가운데 진행된 이날 이사회는 131차 이사회 회의록 보고와 임회원서를 제출한 전직 언론인 3

명의 자격심사에 이어 의료비 지원 내용, 경조비 지급 등을 검토 처리했다. 상반기 결산보고는 7월 10일 있는 회계 감사보고를 바탕으로 정운종 상임이사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다.

이사회는 또 지난 4월 13일 후생복지위원회가 건의한 의료비 지원금 지급



본회 사무실에서 열린 제132차 이사회.

조건 중 ‘자부담 50만 원 이상’을 ‘자부담 100만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

고 지원금 신청도 원인 발생한(퇴원) 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못 박았다.

이는 본회 재정부담 완화라는 취지도 있지만 지금까지의 의료비 지원 현황을 볼 때 전원이 자부담 100만 원 이상이었던 점을 감안해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는 회원들의 다수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4]

6·25참전 언론인들 격전지 방문

글·지용우 본회의설고문
사진·이학성 뉴스타임편집국장

6월과 7월은 역사의 아픔을 함께하고 우리의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달이다.

대한언론인회(회장 홍원기)는 호국보훈의 달인 6월 국가안보의 최북단 전초지인 백령도와 철의 3각지 등을 답사하며 6·25의 민족사적 의미를 되새겨 보았다. 휴전협정 59주년이 되는 7월에는 본회 6·25 참전 언론인회(회장 박기병)가 중심이 되어 피로 물들었던 옛 격전지를 찾아 조국을 지키다 산화한 국군장병들의 넋을 위로하는 등 뜻 깊은 ‘안보체험’을 했다. 무엇보다도 60여년 전 6·25 전쟁에 직접 참전해 누란의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려고 목숨 바쳐 싸우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노 언론인들의 격전지 순례는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6·25 당시에는 소년병이었으나 이제는 80~90대 노인이 된 몸으로 최전방을 찾아서 호국 영령들을 추도한 것은 지금도 변함없이 그 전선을 지키고 있는 젊은 장병들에게 적지 않은 위로가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6·25 첫 승리 쟁취한 춘천대첩

6·25참전언론인들은 지난 7월 20일 강원도 춘천과 양구일대에 산재한 옛 전적지를 두루 순례하고 순국장병 위령비에 헌화하고 묵념을 올리면서 다시는 그런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안보태세를 확고히 다지고, 안으로는 나라를 쪼먹는 중북세력 등 ‘내부의 적’을 뿌리뽑아야 한다는 결의를 다진 성명서(6면참조)도 낭독했다.

이날 6·25 참전언론인들이 제일 먼저 찾은 곳은 6·25전쟁 개전초기에 첫 번째로 대승을 거둔 ‘춘천대첩’의 현장이다. 쌍룡부대 관계자는 이날 춘천대첩 기념평화공원에서 “1950년 6월25일부터 3일간 한국군 6사단은 탱크를 앞세워 파죽지세로 밀려오던 북한군 2군단 산하 2사단과 12사단을 궤멸시키는 대승을 거두었다”고 당시의 전황을 설명했다. 춘천대첩은 개전 3일만에 수도 서울을 함락하려던 북한의 남침 계획에 결정적 차질을 빚게 했을 뿐만 아니라 국군의 한강 방어선 구축을 위한 시간 벌기에도 크게 기여했다는 점에서 전사적 의미가 크다. (참전언론인회의 박기병 회장이 춘천사범 재학 중에 학도병으로 참전했다) 역전의 전통을 자랑하는 쌍룡부대를 방문한 일행은 대한언론인회에서 미리 준비해 간 ‘무적쌍룡부대’(無敵雙龍部隊)라고 쓴 액자를 군단장 박선우 중장에게 전달하고 춘천대첩 평화공원에 들러 전쟁영령 위령비 앞에 헌화, 묵념했다.

‘무적해병’ 용맹 떨친 도솔산 전적지

춘천지구를 뒤로 한 일행은 오후에는 양구 산악지대에 자리한 도솔산 전적지와 두타연주변의 전적지들을 차례로 돌아보고 장병들의 전투태세도 살펴보았다. 이어서 이 지역의 철통방어를 책임



전적지 답사에 나선 정론직필, 호국의 목탁 6·25참전 언론인들.



쌍룡부대(2군단) 사령부 앞에서 필승 다짐.

진 백두산부대(사단장 정향래 소장)를 방문, 부대현황을 들은 뒤 홍원기 회장과 박기병 참전언론인회 회장은 ‘無敵白頭山部隊’라 쓴 액자를 증정하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이날 백두산부대에서는 6·25 참전 노병들의 부대방문에 각별한 의미를 부여한 탓인지 군악대와 의장대까지 등장해서 대대적인 환영퍼레이드를 벌여 노 언론인들을 감동케 했다. 뒤 이어 찾은 곳은 도솔산 전적지다. 이곳은 1951년 6월 4일부터 19일까지 우리 해병이 보름동안 쉬지 않고 피 흘려 싸운 지역이다. 도솔산지구 전투는 한국 해병대가 산악전투에서도 무적임을 증명해 보인 대 혈전장으로 기록되었다. 백두산부대 도솔대대장 마주영 중령의 설명에 따르



‘무적쌍룡부대’ 휘호를 전달하는 홍원기 회장(왼쪽), 6·25참전언론인회 박기병 회장(가운데)과 박선우 쌍룡부대 사령관.

5면으로 이어집니다.

말없는 山河에서 호국영령 추도



백두산부대(21사단) 사령부 앞에서 필승 외침.



두타연 위령비에서 기념 촬영.



‘무적백두산부대’ 휘호를 전달하는 홍원기 회장(왼쪽), 6·25참전언론인회 박기병 회장(오른쪽)과 정항래 백두산부대 사령관.(가운데)

에 잇달아 있어서 방문자들은 깊은 인상을 받게 마련이다. 도솔봉에서 고개를 180도만 돌리면 바로 눈에 띄는 격전지만도 해발 1,142m의 백석산전투를 비롯해서 대우산(1,178m)전투와 그 건너편의 악명 높은 ‘피의 능선’(Bloody Ridge)이 있고, 미군들이 너무나 버티기 힘들어서 오죽하면 ‘단장(斷腸)의 능선’(Battle of Heartbreak Ridge)이라고 이름지은 고지도 그 언저리에 있다. ‘피의 능선’은 연전에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의 배경이기도 했다.

고지에 널린 碑木에 머리 숙여

이날 마지막으로 찾은 두타연(頭陀淵)일대는 전 지역이 지뢰매설로 살풍경하지만 자연경관만은 빼어난 곳이어서 이곳을 찾는 사람들을 묘한 감정에 휩싸이게 한다. 중동부 전선의 전적지를 돌면서 불현듯 머리를 스치는 노래가 생각났다. 현충일이면 들려오는 ‘비목’(碑木)이란 노래다.

‘초연(硝煙·화약연기)이 쓸고 간 깊은 계곡 양지벽에(중략)/ 이름 모를 비목이여(중략)/ 달빛 흐르는 밤 홀로 선 적막감에 울어 지친 비목이여/

이 구슬픈 노래의 작사자는 바로 韓明熙란 사람이다. 그 자신이 젊은 시절 중동부 전선에서 장교로 근무할 때 썩어가는 나무(비목)기둥에 녹슨 철모가 걸려있는 광경을 본 것이 ‘비목’을 작사하는 동기부여를 했다는 것이다. 그는 뒤에 이런 말을 남긴 것으로도 유명하다.

“백골들이 긴 밤을 오염하고 있다는 사실도 망각한 사람들/ 묘비를 안고 통곡하는 혈육의 정도 모르는 사람들/ 아직도 호국의 영령 앞에 (중략)평화의 깃발 한번 바쳐보지 못한 이웃들이여, 그대들만은 (제발) ‘비목’을 부르지 말아다오/ 죽은 놈만 억울하다고 젊은 영령들이 진노하기 전에...

여기에다 “6·25는 북침이다” “천안함의 폭침은 자작극이다”라고 주장하는 악의에 찬 종북세력은 당연히 비목을 불러서는 안 될 1순위의 인간들임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전쟁론’의 저자인 칼 폰 클라우제비츠는 일찍이 “전쟁은 다른 수단을 동원한 정치의 연장”이라고 정의했다. 전쟁도 전쟁 나름이다. 남북한 합쳐서 총 250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1,000만 명이 넘는 이산가족이 생겨났으며, 산업시설의 80% 이상이 완파된 동족상잔의 야만적인 전쟁은 세계사를 뒤져보아도 6·25 한국전쟁 말고는 그 님은꼴을 찾아 볼 수가 없다.

“인류는 전쟁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쟁이 인류에 종지부를 찍게 될 것이다” 라는 경구를 우리는 엄숙히 되새겨 보아야 할 시점이다. [국문]

〈편집자 註〉 필자는 6·25 전쟁중 수도사단 1연대 1대대에 편입되어 최후의 방어선인 낙동강 전선(安康전투)에서 부상을 입어 대한민국 제 1차 명예제대로 전역했다.

4면에서 이어집니다.

면 “일진일퇴의 격전으로 승부를 가리지 못하던 미 해병 제1사단 5연대와 임무를 교대한 우리 해병 제1연대가 투입되면서 전세가 확 바뀌었다는 것이다. 꼬박 15일간 대혈전의 연속으로 고지는 별거숭이가 되었을 정도다. 결국 북한군은 많은 전사자를 내고 패퇴했고 고지는 우리 해병이 완전 장악했다. 이 전투에서 정예부대를 자처하던 북한군 12사단과 32사단은 궤멸되었다. 해병은 700여명의 사상자를 낸데 비해 북한군은 3,200명이나 전사했다는 것은 우리 전사(戰史)에 길이 남을 만한 대전과로 평가된다. 바로 이때부터 이승만 대통령이 ‘무적해병’이라고 명명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이다.

대부분이 산악지대인 중동부 전선에는 6·25때 이름난 격전지들이 지호시간

종북의원 퇴출 · 참전용사 예우 개선 촉구

대한언론인회 6·25참전언론인회 전적지서 성명발표

우리 대한언론인회 6·25 참전언론인 일동은 한국전쟁당시 피로 물들었던 격전지를 답사하면서 6·25 남침전쟁이 빚은 남북 쌍방간의 엄청난 인명희생과 전 국토 초토화의 비극이 모두 북한 공산집단의 오판과 적화야욕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외면한 채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반국가적 이적행위를 일삼고 있는 국내 종북 주사파집단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1. 종북 주사파 의원들은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을 위해 마땅히 국회에서 퇴출되어야 하며 정부는 대한민국의 헌법에 근본적으로 역행하는 종북·좌익집단의 망국적인 반국가 활동을 뿌리 뽑기 위한 특

단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현재 6·25 참전용사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월 12만원은 생사를 넘나들며 나라를 지킨 참전 노병들에 대한 응분의 예우로 보기 어렵다. 정부는 누란의 위기에서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 목숨 바쳐 싸운 6·25 참전 유공자들의 처우를 현실에 맞는 적정수준으로 개선할 것을 간곡히 희망한다.

2012년 7월 20일

(사)대한언론인회 6·25참전언론인 일동

6·25참전 언론인회 전적지 방문 이모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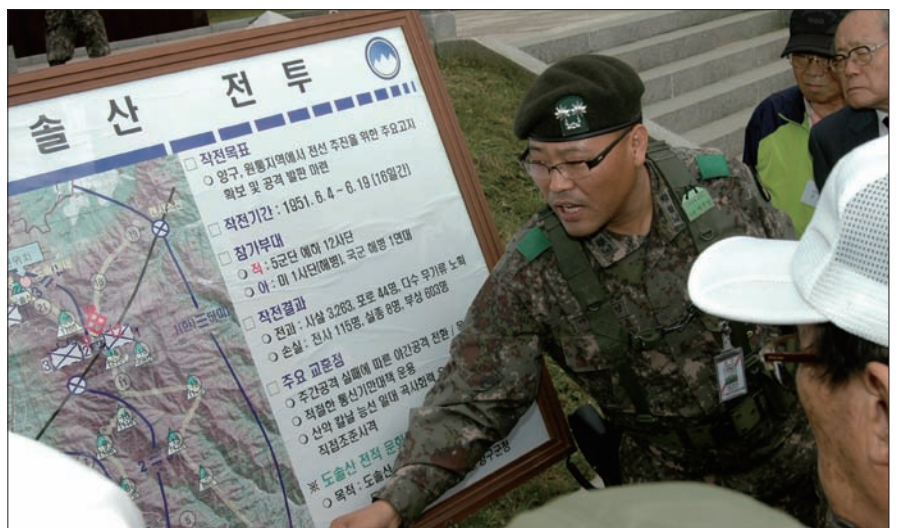
춘천대첩기념평화공원에서 종북의원 퇴출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는 6·25참전 언론인들.



춘천대첩기념평화공원에서 6·25당시 전투상황설명을 들었다.



춘천대첩기념평화공원에서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고 있다.



도솔산 전투 상황을 설명하는 도솔산 대대장.



양구 도솔산 전투 위령비에서 묵념하고 있는 6·25참전 언론인들.



백두산 부대에서의 의장대 사열식.

인류歷史 外계충격현상 영향 컸다

이 글은 2012년 7월 12일에 ‘광화문 포럼’에서 행해진 이태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의 ‘지구환경과 한국사’의 강의내용을 요약한 것이다.〈편집자〉

화성-목성 사이 수많은 돌덩이

지금까지 여러 종류의 한국사 개설서들이 한국사 교육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대부분 一國史의 관점에 머무는 한계가 있었다. 필자는 『새한국사』(2012. 까치글방)를 통해 이런 한계를 떨치고 ‘동아시아가 있는 한국사’를 세상에 내놓고 싶었다. 20여 년 전에 접한 우주 과학계의 외계충격설이 이에 큰 도움이 되었다.

지구는 태양계의 한 행성으로 태양계의 우주적 현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태양계의 우주적 현상이란 무엇인가? 요즈음 천체 관련 과학서에 실린 태양계 그림은 화성과 목성 사이에 수많은 점들을 찍어놓고 있다. 이 지역에 수많은 돌덩어리들이 떠 있다는 표시이다. 거기에 소행성 벨트(Asteroid belt)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 우주 과학자들은 그 수가 2억 개가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크기도 수 미터의 소형에서 990킬로미터나 되는 초대형도 있다. 이 많은 돌덩이들은 그냥 벨트 구역에 떠 있는 것이 아니라 해성처럼 태양의 중력에 끌려 타원형을 그리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돈다. 중요한 것은 그 타원형 궤도가 지구의 원형 궤도와 만나게 되며, 그 순간에 그 물체는 지구의 중력에 끌려 지구의 대기권으로 들어오게 된다. 이런 원리로 소행성(또는 유성)이 대기권에서 마찰로 깨어지고 남은 것이 지구 표면에 떨어지는 것을 외계충격이라고 한다.

소형 유성도 큰 충격

『사이언스(Science)』 1980년 6월호(제4448호)에 미국 버클리 대학교의 천체물리학 교수 루이스 알바레스를 비롯한 4인의 교수 이름으로 ‘백악기 말의 생명체 소멸의 외계 원인’이란 논문이 실렸다. 덴마크 등지의 해안 단구의 중생대 백악기와 신생대 지층 사이에 이리디움이란 광물질이 두껍게 쌓인 것을 발견하여 시작된 연구 결과였다. 이리디움이 많이 함유된 소행성이 중생대 말에 지구에 충돌하여 남겨진 흔적으로 판명된 것이다. 연구팀은 이리디움 층의 두께로 그 소행성이 길이 10킬로미터 정도였을 것이며, 그것이 남긴 크레이터는 지름 150킬로미터 정도가 된다는 추산도 제시하였다.

2002년 미국 컬럼비아대학교의 마이클 랍피노 교수 팀이 지층분석으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이어지는 지구의 역사는 초대형 소행성의 지구 충돌에 따른 것으로 판명되었다.

외계충격 현상은 초대형 소행성만이 일으키는 것이 아니다. 2억 개 이상에 달하는 소행성(유성) 가운데 수 미터에서 수백 미터 크기의 것들도 많다. 작은 것일수록 개수가 많고 지구 대기권에 들어올 확률은 더 높다. 이 중소형의 유성들이 장기간 지구에 들어올 때,

지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겪는 고난의 역사, 그것이 곧 『새한국사』의 주요 관점이었다.

神의 등장

1975년 런던에서 ‘학문간 학회’(SIS, Society for Interdisciplinary Studies)가 결성되었다. 소행성, 혜성 등의 지구 근접물체(Near Earth

특별기고



이태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운데 사람들이 받은 정신세계의 충격에 관한 보고가 있었다. 이전에 인류는 어느 지역에 서나 에니미즘의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었다. 즉 수평 방향의 나무나 바위에 정령(deity)이 깃들여 있다고 생각했다. 이런 관념이 기원전 3500년 이후 외계충격 현상이 계속되는 가

기나 바위에 그려 남겨진 것들이 많다. 충격 현상이 끝난 뒤에 하늘의 무서운 존재는 각 종족의 창세신화의 주인공으로 바뀌었다. 외계충격 현상은 인류 문명의 여명기에 각지 사람들의 정신계에 이처럼 큰 자국을 남겼다.

270년간의 외계충격 현상 기록

필자는 SIS의 케임브리지 격년차 대회와 거의 같은 시기에 두차례에 걸쳐 국제학술회의에서 『조선왕조실록』의 천재지변에 관한 기록들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필자의 조사 결과는 서양 학자들 사이에 지구 환경 문제로 거론되던 17세기의 소빙기(little ice age) 현상이 바로 외계충격 현상의 하나인 것을 밝히는 것이었다.

소빙기 현상은 기온의 강하로 농산물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기근, 전염병이 만연하였을뿐더러 반란, 폭동이 잇따라 일어나 서양학계에서는 ‘17세기 총체적 위기론’으로 발전시키고 있었다. 나는 조선 중기의 기근과 전란도 거의 유사한 현상으로 간주하여 『실록』을 통해 그 실체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조사 결과, 다량의 유성이 1490년부터 270년간 지구에 돌입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로써 소빙기의 기간도 270년 간으로 확장되었을 뿐더러 연관현상 20여 가지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를 『삼국사기』 『고려사』에 대입시켜 본 결과, (1) 680~880년 (2) 1100~1200년 (3) 1340~1420년 등이 다른 외계충격기로 드러났다. 후속 성과가 이렇게 잇따라 우리 역사 전체를 외계충격설로 조명하는 시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1)은 통일신라기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기간이다. 신라는 통일의 영광을 누리기도 잠시, 잇따른 유성 낙하로 황룡사 9층탑이 세 번이나 타는 등 자연 재난에 크게 시달렸다. 불국사, 석굴암, 성덕대왕 신종 등은 삼국 통일 위업의 산물이 아니라 도솔천의 제석(帝釋)에게 재난을 그치게 해달라는 간절한 소원을 담은 것이었다. (2)는 고려에서 이자겸의 난, 묘청의 난, 무신의 난 등이 잇따르던 시기이다. 하늘의 잦은 이상 현상은 귀족들로 하여금 하늘이 왕을 버렸다고 생각하게 하여 반란이 잦았다. (3)은 왜구와 홍건적이 고려왕조를 괴롭히던 시기로서,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회적, 정치적 동요는 결국 왕조가 바뀌는 역사로 이어졌다. 조선왕조 소빙기 때도 천재지변의 원인제공자를 따지는 공방 속에 사회와 당쟁이 격화되었다.

현대 역사학은 모든 학문이 그렇듯이 19세기 산업혁명과 함께 발달한 것이다. 따라서 모든 시선이 눈앞의 사람과 그들이 조직하는 사회에 모아진 채 그 삶의 무대의 환경을 경시하는 결과를 낳았다. 사회 환경에 대한 조망이 결여된 역사학은 온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하늘 방향으로 향했던 잃어버린 시선을 되찾아 온전한 역사상을 그려나가는 것은 21세기 역사학의 과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필자]

소행성 충돌 지구변화 이끌어 조선왕조실록기록으로 밝혀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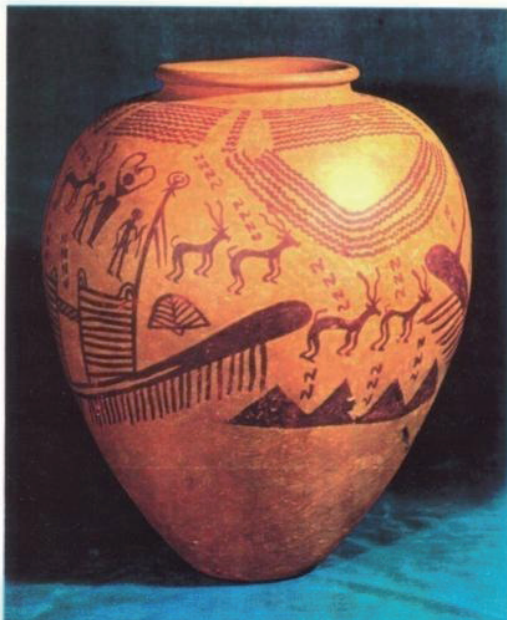


1908년 6월 시베리아 툭스 상공에서 수백미터 크기의 유성이 공중 폭발, 주위 1800Km 범위 수목들이 모두 쓰러진 모습.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2천배 위력으로 판명됐다.

Objects) 연구를 위해 천체물리학, 지질학, 고 수목학, 해수면학, 고고학, 신화학 등 여러 분야의 학자들이 모였다. 이 학회는 1997년 5월 케임브리지대에서 학술 대회를 열었다. “청동기 문명 시기의 자연 재난”이란 주제아래 18편의 논문이 제출되었다. 외계충격 학설을 인류의 역사에 적용한 유례가 드문 회의로서 다음과 같은 새로운 사실이 규명되었다.

첫째, 기원전 3500년부터 약 3000년간 장기에 걸쳐 외계충격 현상이 일어난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하였다. 북부 아프리카에서 중동에 걸치는 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가 많았지만 사하라 사막에 관한 보고는 가장 인상적이었다. 즉 이 지역은 본래 관목이 자라던 초목지대로서 신석기 문화가 발달하고 있었는데 기원전 2200년 경 수백 미터 크기의 소행성이 공중에서 폭발하여 사막이 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외계충격 현상이 계속되는 가



기원전 3500년 이후 우주 소행성의 계속된 외계충격(지구충돌) 공포심을 그린 이집트 토기.

운데 하늘 방향에 대한 공포심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광음과 섬광이 그치지 않는 가운데 하늘 방향에 우리를 모두 죽이려는 무서운 존재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 공포심을 토

“우린 행복합니다 … 그러나 나라가

평안한 노후, 행복한 삶

지난해 회혼식(回婚式)을 치른 김용수 회우와 부인 유윤순 여사 부부가 동네 식당에서 외식하며 대화를 나눈다.

먼저 부인의 말이다.

“당신은 행복한 남자예요.”

김 회우의 화답이다.

“당신은 복 받은 여자요.”

서로 바라보는 눈길이 따사롭다. 믿음과 정이 눈처럼 쌓인 부부의 모습이다. 김 회우는 1927년생으로 올해 여든 다섯이고 부인은 세 살 아래다.

지난 해 까지도 해마다 미국 보스턴에 사는 둘째와 셋째 딸집에서 두세 달씩 보내곤 했는데 지난해 골프를 치다 보니 18홀 돌기에 벅차고 비행기 타고 17시간 썩 여행하는 것도 힘들고 해서 올해부터 그만 두기로 했다고 한다.

서울 강남구 일원동 단독주택에서 큰 아들 가족과 한집에 살지만 식사 같은 살림은 부인과 단 두 식구가 오순도순 꾸려나간다. 아들 가족과의 프라이버시는 최대한 지키면서 옆에 아들네가 있다는 뿌듯한 안정감은 최대로 누리는 것이다. 이 시대 노후를 보내는 최고의 패턴을 김 회우가 누리고 있는 것 같았다. 게다가 단독 주택 1층과 지하층을 세 주고 받는 월세로 생활비와 용돈 쓰고 이따금 손자들에게 용돈 주기도 부족함이 없다니 정말 복 받은 부부가 아닌가. 더하여 1남 4녀와 그에 따른 손자, 손녀 10명이 모두 잘 살고 잘 자라고 있으니 기쁘고 때로는 어린 손녀의 재롱을 보거나 사회인이 된 손자가 용돈이라도 내밀 때는 정말 좋다고 한다.

행복이 가득한 김 회우에게도 근심거리가 있기는 하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건강 문제다. 두 달 전 갑자기 오한이 나고 구토와 설사가 심해 병원으로 달려갔더니 폐렴이래서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별일 없이 완치됐고 혈압과 당뇨 그리고 전립선 등으로 신경이 쓰이기는 하지만 약물 치료를 계속 받고 있어 활동과 생활에는 전혀 불편함이 없다. 그러나 매달 병원에 갔다 주는 50~60만원은 아까운 생각이 든다고 한다. 며칠 전에는 큰 사위가 병원을 하고 있는 동해시를 다녀왔다. 손수 왕복 운전해서 부부가 함께…

‘운전은 삼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권했더니 “집 사람이 갈 때 마다 싸 가는 것이 많고 올 때도 그렇고…” 아직, 운전은 끄떡없다고 한다.

김 회우는 거의 매일 근처 대청공원을 30~40분 동안 산책하며 기분에 따라 양재천변을 1시간 정도 걷기도 한다. 김 회우의 유일한 근심은 부인이 더 아파 밥을 못해주면 “어쩌느냐”는 미리 하는 걱정뿐이다.

기자출신이 뉴스에 빠지는 것은 숙명일 테지만 김 회우도 매일 뉴스는 꼬박 꼬박 챙긴다. 여러 해 전부터 컴퓨터에 몰입해서 강남구청에서 시행하는 무료 정보화 교육을 받아 실력이 대단해졌다고 자랑한다. 포토 샵도 능숙하고 파워포인트도 수준급이다. 지금은 고급 과점인 PC 관리반을 수강한다고 한다. 인

찬란한 불꽃 실버 파이팅

<49>

회우초대석

인터뷰 : 글·사진

터넷을 통해 각국의 국제 뉴스를 섭렵하는 재미도 쏠쏠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참 좋은 나라라는 자랑을 빠뜨리지 않았다.

중국 유학 때 영어공부

김 회우는 함경남도 원산에서 태어났고 강원도 통천에서 자랐다.

고등학교까지 공부는 원산에서 했다. 1944년 원산상고를 졸업하던 해 형님이 사업하고 있던 중국 유학 때부터 특히 영어 공부에 열중했다. 그래서 영어와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된다. 천진서 해방을 맞았고 이듬해 2월 미군의 LSD 귀국선을 타고 가족과 함께 인천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경성제대 경제학부(지금의 서울 상대)로 편입해서 다닐 때 하숙집 딸이 지금의 부인이다. 대학 졸업 후 영어 학원 강사로 인기를 누리던 중 6·25를 맞는다. 수복 후(1951년) 함흥에 본부가 있던 미군 10군단의 민간 통역관으로 종군했다.



지난 7월 20일 6·25 전적지를 찾은 김용수 회우가 참전 당시를 회고하고 있다.

6·25때 첩보원 침투공작수행 … 제대후 UPI 통 프라우다지기자 귀순 주선 특종 … “종북파 국회진

흥남 철수 때 부산으로 귀환했다가 HID(육군첩보부대)의 미군 소속 연락 책임자로 그리고 다시 공군특무대원으로 백령도와 진남포 앞 초도 등지의 서해안 일대에서 대북 첩보원을 북한 해안에 침투시키는 작전을 미군과 공동으로 수행했다.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넘겼다. 공작원을 북한으로 들여보내고 다시 마중나가 데려오는 작전인데 대부분은 잡혀서 처형당하거나 변절해서 북한에 항복했다고 한다.

죽을 고비 수없이 넘겨

40~50톤 규모의 어선을 무장시키고 쾌속 모터를 달아 모선(母船)으로 이용했는데 한번은 돌아오는 첩보원을 기다리다가 시간이 늦어져서 썰물 때가 됐고 갯벌에 걸려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저만치 북한 사람들의 움직

임이 눈으로도 보이는 가까운 거리였다. 길고 긴 시간이 흘렀다. 하늘이 도왔던지 밀물 때가 지 숨죽이며 기다렸다. 별일 없었다. 배가 뜨자 쾌속으로 뚝달리던 서해바다의 상쾌함은 무어라 형언할 길이 없었다. 이런 일도 있었다. 휴전 직전, 철북 같은 밤이었다. 돌아오는 공작원과 접선을 기다리는데 난데없이 총격을 가해오는 게 아닌가? 응사하면서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상대방에서도 신호탄을 쏘고…

그런데 이게 뭐야. 다른 첩보부대의 아군이 적으로 잘 못 알고 공격한 것이었다.



자택근처 식당에서 다정히 포즈를 취한 김용수회우 부부.

대학 때 하숙집 딸과 결혼

1951년 어느 날 휴가 길에 옛 하숙집을 찾았다. 그 집 딸이 보고 싶었고 그리웠다. 그녀도 반겼고 그래서 연애했고 사랑했다. 처갓집 대청마루에서 전

가 걱정됩니다”

金龍洙

- 전 UPI 통신사 서울지국장
- 전 뉴욕타임스 서울특파원
- 전 코리아 헤럴드 편집국장

사진 호천웅 (본보 편집위원·수필가)

통의례로 혼례를 치렀다. 그렇게 60년을 함께한 부인은 김 회우가 총각 때 낄싹했고 깨끗해 보여 좋았고 믿음직해서 사랑하게 됐으며 술, 담배도 안하고 가정적인 데다가 부지런하고 지금까지도 무엇이든 배우려고 하는 남편이 최고라며 흐뭇해했다.

군에서 제대한 후 1954년 동양통신사 외신부 기자가 됐다. 다음해 계약사인 UPI 통신사 한국지부 특파원으로 발탁됐고 58년에 지국장이 됐다. 그리고 다음해에 판문점에서 김용수 지국장은 세기적인 특종을 낚는다. 김 회우의 회고담이다.



1959년 1월 27일 대한민국에 귀순한 프라우다지 이동준 기자(가운데)가 탈출하기전 김용수 회우(오른쪽)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통신 특파원으로 진출 분통 터져요”

기자 동무! 이남으로 가고 싶소

1959년 1월27일, 여느 때와 다름없이 판문점 정전회담을 취재하고 있었다. 창문을 통해 회담장을 물끄러미 들여다보고 있는데 누군가가 어깨를 톡톡 쳤다. 북측 보도요원이 담뱃불을 빌려달라고 했다. 담배에 불을 붙인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소곤 거렸다.

“기자 동무! 이남으로 가고 싶소. 도와주시오.” 깜짝 놀라 알겠다는 눈짓을 보내고 유엔군사령부 공보실장에게 알렸다. 반시간 가량 지나 망명을 받아들이라는 통보가 왔다. 유엔군 측의 비밀 작전이 시작됐고 망명 당사자인 소련 프라우다지의 평양지국 이동준(李東濬)기자는 극적인 망명에 성공한다.

이 과정을 김용수 기자가 지켜보며 특종 취재했고 간단한 인터뷰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동준 기자는 극비리에 판문점을 빠져나와 서울로 향했다.

그리고 점심 시간, 판문점이 요란해졌다. 누군가 라디오를 켜니 프라우다기자가 판문점을 통해 망명했다는 UPI 통신발 뉴스가 터져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고 김 회우는 세기적인 특종의 주인공이 되었다.

훗날 이동준을 만난 김 회우가 왜 나를 골라 망명 의사를 알렸느냐고 물었더니 “김 기자가 미국인들하고 제일 친한 것 같았고 또 미더워 보였다” 라고 했다고 한다. 김 회우의 믿음직한 인간성이 프라우다 이동준 기자의 신뢰를 사게 했던 것 같다.

이동준 기자 망명사건 이후 김 회우는 한 동안 판문점 출입을 삼가야 했다. 북한 측의 있을 지도 모를 보복이 우려되기도 했고 미군측에서도 이를 권유했기 때문이다. 1년쯤 지난 후에 김 회우가 비밀 경호를 받으며 회담장에 나가 보았더니 북측 보도요원들은 모두 새얼굴로 바뀌었고 그들 중 한명이 김 회우를 신참 기자인 줄 알고 말을 걸어왔다.

“어느 신문 소속입니까?”
“서울의 UPI에서 왔소.”
“요새는 어찌 샘 김이 안 나타납니까?”
“나하고 같이 일하는 데 그 사람 잘 압니까?”

“아, 잘 알다 뿐입네까!”
“그 사람 요즘 많이 바빠서요…”
샘 김은 새뮤얼 김이란 김 회우 필명의 약칭이었다고 한다.

망명한 이동준 프라우다 기자는 그 후 서울신문에 입사해서 국외출입 기자까지 지냈는데 5·16이후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다고 한다. 이동준 기자 망명사건이후 판문점의 분위기도 달라졌고 북측에서는 판문각을 지었고 남측에서도 평화의 집을 지었으며 감시도 강화되었다고 한다.

군부 등장 예상 칼럼으로 파문

김 회우는 UPI에서 기자생활을 하면서 4·19와 5·16을 취재했고 1964년 도쿄 올림픽을 취재했던 일이 진한 기억으로 남아있다고 털어놨다.

4·19 때는 경무대 총격 사건 때 학생들과 함께 총탄을 피해 골목길로 숨었던 기억이 생생하고 4·19 이후 정부는 무능하고 경찰까지 데모를 벌이는 등 사회질서가 어지러워졌고 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군부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칼럼을 썼는데 한 달 후 5·16이 터졌던 기억도 새롭다고 했다.

이 칼럼은 당시 국방대학에 다니던 지인 등의 말을 듣고 쓴 것이었다.

이 글로 예정되었던 장면 총리와 의회견이 취소되기도 했다고 한다.

또 5·16 발생한 후 군부가 유대하 주일대사를 소환하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해서 확인하려하자 군부가 문제를 삼고 연행하려해서 미국대사관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던 일도 잊혀지지 않는 취재 비화 중의 하나였다.

5·16 후 박정희의 민정 이양 관련 기자회견장에서 “민정이양 한들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니겠느냐?” 는 질문을 했더니 크게 화를 내서 무슨 일을 당하는

고령자의 건강 리포트 ⑥

뇌기능 돕는 6가지 방법



이광영

- 본회 논설위원
- 전 한국일보 편집위원
- 한국 골든에이지 포럼 상임이사

차 등에 들어 있는 카페인을 중추신경계를 활성화시켜 각성과 주의력을 증진시켜준다. 과량 복용하면 과민해지고 불안해져 불면에 빠질 수 있다. 하루 1, 2잔 정도가 좋다. 코카인과 암페타민 등도 자극제이나 이들은

카페인과 다른 방식으로 뇌 활동을 자극하여 건강을 크게 해친다.

4. 비디오 게임 : 비디오게임은 두뇌의 민첩성을 증진시키고 손과 눈의 협력관계와 인식 특히 도형인식(pattern recognition)능력을 높여준다. 게임을 즐기는 사람은 집중력 범위가 넓어지고 정보처리 능력이 증진된다. 인터넷 상의 정보검색(surfing)도 좋다.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절제가 필요하다.

5. 음악 :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등의 음악 활동은 뇌기능을 강화해 준다. 음악은 뇌의 보상 담당부위를 활성화하여 두려움, 부정적 감정, 걱정, 불면증 등을 해소해준다. 혈압을 낮추어주고 치매 환자 치료에 도움을 준다.

6. 명상 : 명상을 하면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뇌의 좌 전두엽 피질 부위를 활성화하여 마음이 편안해지고 창의적 사고(思考)능력이 증진된다. 긴장, 근심, 우울, 불면, 동통을 완화하고 면역력도 높여준다. [4]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감퇴 되고 건망증이 심해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치매를 걱정한다.

외지(外誌)에 보도된 ‘지력(智力)을 향상시키는 6가지 방법’(6 Ways to Boost Brain Power)을 요약 소개한다.

1. 운동 :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잘되어 뇌세포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을 원활히 공급해 준다. 이로해서 뇌 활동이 원활해지고 항신경성인자(neurotropic factor) 생산을 증가시켜 뇌세포 기능을 활성화 한다. 그래서 뇌기능이 향상되고 기분이 좋아지며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 매주 4~5회, 30~40분 정도 빠른 걷기운동이 좋다.

2. 식생활 : 등 푸른 생선과 견과류에 비교적 많이 들어있는 오메가3계열 지방산이 뇌기능 증진에 도움이 된다. 오메가3계열 지방산 공급이 낮으면 치매(알츠하이머), 우울증, 정신분열증 등 뇌질환에 걸릴 위험성이 크다. 과일과 채소는 항산화물질들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 뇌세포 손상을 막아준다. 동물성 기름기에 많이 들어 있는 포화지방은 많이 섭취할 경우 치매에 걸릴 가능성을 높인다.

3. 자극제 : 자극제는 신경계, 심박동, 혈압, 에너지대사, 호흡 등을 자극하는 물질을 말한다. 커피와 흥

졸 겁이 났었는데 그냥 넘어간 것은 외신에 대한 계산 때문인 것 같다는 회고도 했다. 김 회우는 1974년 뉴욕타임스 특파원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78년에는 코리아 헤럴드의 편집국장직을 맡아 한국신문 최초로 CTS(Cold Type System)를 도입하는 업적을 쌓는다.

기자생활을 되돌아보면서 김 회우는 이승만 대통령의 국제 감각은 뛰어났으나 장면 총리의 통치 능력은 크게 모자랐고 박정희의 정권 장악은 불법적이었지만 나라를 바로세우고 국력을 키운 공로는 높이 평가해야 한다는 존평을 망설이지 않았다. 이어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등 다음 대통령들에 대한 존평을 궁금해 하자 그 애긴 그만하자면서 대한언론인회의 6·25 종군기자모임에서 전방시찰 때 나섰던 원로들의 나라 걱정으로 인터뷰를 마무리 지었다. 어떻게 중복 주사파가 국회까지 진출 할 수 있으며 정부는 무엇을 했냐고 한탄하면서 대통령의 시국대처 능력, 정치력이 있기는 한 것이냐고 꾸짖는 말을 멈추지 않았다.

더구나 중복 세력이 통합이니 연대니 하면서 집권에 참여하게 되면 이 나라는 어찌할 것이냐고 깊은 시름을 털어놓기도 했다. 지나친 복지와 포퓰리즘

그리고 부패에 대한 김 회우의 걱정은 나이만큼이나 깊어 보였다.

김 회우는 또 후배 기자들에 대해서도 과거의 기자들은 정의를 위해서 사실을 파헤치겠다는 사명감과 프로근성 같은 것이 뿌리 깊었는데 요즘은 월급쟁이 그리고 이기적인 존재로 퇴락한 것 같아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고 했다.

험난한 현대사를 믿음과 성실로 지켜낸 김용수 원로 회우는 개인적으로는 걱정이 없이 평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으나 나라 걱정에는 시름이 깊었다.

김용수 회우는 부인의 평가처럼 평생을 부지런하게 탄눈 팔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온 결과, 그 열매로 평안한 노후를 보낸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고 하지 않던가, 젊어서 노력하면 늙어서 호강한다는 아주 쉬운 공식이 살아나는 사회는 환상일까?

한 달에 한차례씩 만나는 김 회우의 통천 군민회 모임과 원산상고 동기생 모임이 건강하고 재미있는 모임으로 더 실속 있어 지기를 바라고 김 회우가 살고 싶은 컴퓨터와 인터넷 활용 실력이 사회에 기여하는 길을 찾았으면 좋겠다. 무엇보다 김 회우 내외분의 건강을 축원한다. [4]

포퓰리즘공약 비판사실 돋보여

여야 대선 주자들의 포퓰리즘이 극성을 띤다. 안보와 경제성장은 뒷전인 채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교육, 반값 등록금을 넘어 반값 통신비도 등장했다. 나라 살림이야 어떻게 되건 표를 얻고 보겠다는 천박한 국가관만이 경쟁한다. 국민의 수준이 그렇게 우습나. 타당성이 40% 밑으로 조사돼 폐기된 동남권 신공항 건설까지 부활했다. 유력 대선 주자인 박근혜가 말하면 새누리는 다음 날 복창한다. ‘사당화’ 논란엔 이유가 있다. 18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강행한 영·유아 무상보육은 시·도의 예산부족으로 중단 위기다. 정치권은 포퓰리즘을 반성하지 않고 정부가 책임지라고 억박지르고 있다. 적반하장이다.

상황 변화도 없는데 끼워넣기

포퓰리즘을 강력히 비판한 신문들의 논조가 돋보였다. 조선일보는 17일 ‘여야, 대선 때까지 ‘신공항’의 ‘신’자도 꺼내지 마라’는 사설에서 “신공항은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놓은 뒤 가덕도를 미는 부산과 밀양으로 해달라는 대구가 전쟁하다시피 유지경쟁을 벌였다가 작년 3월 백지화됐다. 타당성 조사에서 두 곳 모두 100점 만점에 40점도 못 받았다. 무슨 상황 변화가 생겼다고 정치인들이 다시 신공항을 들고 나오는 건지 알 수 없다. 나중에 감당도 못할 국책사업을 갖고 표 좀 얻어 보겠다고 지역을 갈가리 찢어버리는 일 좀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중앙일보도 18일 사설 ‘또 신공항 타령인가’에서 “정치논리에 밀려 건설한 지방공항 14곳 가운데 11곳이 세금 먹는 하마로 방치돼 있는 슬픈 현실이다. 면밀한 타당성 조사 없이 대형 국책사업을 대선 공약에 끼워 넣지 말아야 한다는 게 새로운 공감대”라는 논지를 펼쳤다.

“지자체 돈으로 하라”

매일경제는 “신공항을 건설하겠다고 미국처럼 지자체 돈으로 하라. 세종시처럼 중앙정부가 100% 돈을 들여 해주면 다른 지역에서도 지원해달라고 아우성칠 것이며 제2의 세종시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양식 없는 포퓰리즘 씩

부터 잘라 버려야 한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사정이 이런 데도 박근혜가 ‘기회가 되면 공약으로 내걸겠다’고 하고 문재인도 같은 구상을 내놓은 것은 절박한 영남 표 때문일 것이다. 특정지역의 표를 균형발전으로 왜곡한 세종시의 폐해는 너무 크고 미래에도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선심성 개발공약의 비판은 당연하다.

신문시평



김영환

·본보 편집위원
·전 한국일보 파리특파원

설·교육환경 개선 예산은 2012년 2849억원으로 반토막이 났다. 화장실과 탈의실 등 낡은 교육 시설 현대화 등에 쓰일 예산이 대폭 깎였다. 무상급식은 결코 공짜가 아니었다. 교육 현장부터 제대로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무차별 복지는 중진국민 우리 처지에

폐기된 동남권 신공항 부활 질타 여야 경제 민주화 경쟁 폐해 지적

영·유아 무상보육 포퓰리즘도 도마에 올랐다. 동아일보는 7일 ‘선거 때문에 나라 곳간 거덜 낼 수는 없다’는 사설에서 “여당 소속 구청장의 입에서 ‘무상복지 포퓰리즘이 지자체 재정을 바닥냈다’는 한탄이 나오는 판이다. 정치권의 포퓰리즘 공약을 정부가 지켜야 할 이유는 없다. 지금의 복지제도라도 2050년이면 재정적자가 GDP 대비 19%로 남유럽과 같은 상황이 된다. 그리스 위기는 방만한 복지 정책에서 비롯됐다. 정치권이 선거 때마다 복지 정책을 쏟아내면 국가 재정이 견뎌낼 수 없다”고 역설했다. 국민일보도 5일 무상보육 관련 사설에서 “부의 분배를 위해서도 선택적 복지 제도로 선회해야 한다.

정치권은 무분별한 포퓰리즘 정책을 포기한 영국과 일본 정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시 송영길 인천시장은 4일 민주당 소속 시 도지사협의회에서 “무상보육이 불필요한 가수요까지 불러일으켰다”고 비판했다. 세계일보도 2일 사설 ‘전면 무상급식 눈 감고 밀어붙일 일인가’에서 “서울시의 무상급식 예산은 2년 새 7배 이상 늘었고 2010년 6179억원이던 학교시

서 혈세 낭비다. 정치인들에게 자기 돈으로 하라면 그렇게 선심 쓰겠는가? 성장 동력을 상실한 채 저출산 고령사회의 진입으로 복지비용이 급증하는 나라에서 재정 능력도 없이 포퓰리즘의 깃발을 흔든다. 남유럽 PIGS의 경제위기에서 보듯이 국민들을 굶을 수 없는 ‘공짜 병’에 중독시켜 망국적 위기를 재촉하는 것이다.

무상복지 비판 목살은 독재다

신문들은 전면 무상급식의 병폐를 지적했지만 정치권은 목살한다. 언론을 무시하는 독재적 행태에는 더욱 단호하고 줄기차게 비판해야 한다.

전면적 복지는 부의 재분배를 방해하여 경제민주화를 저해하는데 여야가 합창하는 전면적 복지 포퓰리즘의 재원 마련을 위해 등장하는 것이 경제민주화라는 것은 역설이다. ‘경제민주화’는 적정한 소득 분배와 경제력 나눔 방지,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는 전두환 독재시절인 1987년 10월29일 개정된 헌법 119조의 2항을 먼저 털고 꺼내서 쳐드는 격이다. 2항보다 중요한 1항에서 헌법은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쓰고 있다. 동아일보는 “여야 구분 없이 성장 담론이 안 보이고 경제민주화 경쟁을 벌이고 있다. 기업 때리기가 춤추면 성장이 위축되며 일자리가 사라지고, 국가경제가 망가지면 최종 피해자는 일반 국민, 특히 서민이다”라고 경고했다. 문화일보는 “정치권의 포퓰리즘 병이 대선을 앞두고 도지고 있다. 지난 4·11총선의 무상복지에서 경제민주화, 구체적으로는 기업 때리기로 메인 메뉴가 바뀌었을 뿐이다. 정치권은 국가경제 자해 행위인 기업 때리기 경쟁을 이쯤에서 멈추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재벌 대기업 집단이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양극화를 가져온 원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100대 민간 기업 자산 총액이 정부 총자산의 95%까지 성장했다. 삼성, 현대차, SK, LG 4대그룹의 지난해 매출액(603조원)은 우리나라 GDP의 절반을 웃돌고 있다”고 했다.

GDP와 기업매출은 비교대상 아니다

그러나 GDP와 기업매출의 비교는 몸무게와 신장을 비교하는 격이라고 비판한 경제학자도 있다. 비교하려면 상위기업의 부가가치와 GDP가 대상이라는 것이다. 작년 세계 500대 기업 중 로열더치셸, 엑슨모빌, 월마트는 매출액이 500조원을 넘었다. 10위 도요타는 약 260조원, 20위 삼성전자는 165조원이었다. 기업은 이윤이 목적이다. 양극화의 원죄는 정치인에 게 있다.

질시의 잣대로 글로벌성을 폄훼할 게 아니다. 그보다 GDP의 30%로 360조원 규모라는 지하경제 개선이 시급하다. 현찰로만 돌아 부정과 부패의 온상인 초거대 지하경제의 수술이 경제민주화의 선결과제다. 작년 일본 민주당은 2009년의 무분별한 공약을 사죄했다. 그중엔 무료 고속도로도 있었다. 후안무치하여 사과할 줄도 모르는, ‘철관간’ 우리나라의 정치 포퓰리즘과 경제민주화의 포퓰리즘을 신문들은 잘 감시하고 비판해야 한다. [4]

비브리오 패혈증 조심!

본격적인 여름-- 더구나 요즘은 한창 휴가철이라 많은 사람들이 더위를 피해 바닷가를 찾고 있는데 특히 먹을거리로 해산물을 많이 찾다보니 여름철 유행 질병인 ‘비브리오패혈증’에 걸리는 수가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비브리오패혈증’이란?

비브리오패혈증은 바다에 살고 있는 호염성 세균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 감염이 되는 질병이다. 일반적으로 해수 온도가 높을 때 더 자주 발생하는데 바닷물의 온도가 높고, 여름 휴가지로 바닷가를 찾는 사람이 많은 7월과 8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올해는 이른 더위 탓인지 벌써부터 비브리오패혈증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하니 주의해야 한다.

비브리오패혈증을 일으키는 원인균은 ‘비브리오 볼니피쿠스균’ 인데 갯벌과 어패류 (조개, 게, 낙지 등)에서 주로 발견되고 해수와 하천수가 만나는 지역에서 많이 분포하며 서남해안지역에



이보길

·본보 편집위원
·전 KBS 해설위원

서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편이다.

증상은 두가지

비브리오패혈증에 감염된 사람의 증상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창상감염형’은 휴가철 바닷가에서 걸리기 쉬운 증상으로 이런 균에 오염된 바닷물이 상

처 난 부위를 통해 침투하면서 나타난다.

잠복기는 약 12시간 정도로 패혈증에 비해 짧아 빠른 응급조치가 필요하다. 치료가 늦어지면 피부와 근육, 근육이 괴사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다음 ‘패혈증형’은 음식으로 감염되는 경우다. 어패류인 조개나 생선 등을 날것으로 먹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질병인데 잠복기는 2-8일이다. 이 패혈증 역시 괴사(치사율 40~50%)가 나타날 수 있다. 이 밖에도 급작스런 발열, 오한이나 구토, 전신 쇠약감, 무기력함, 설사, 하지부종, 반상출혈, 수포, 궤양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11면으로 이어집니다.

정치와 방송 헤어질 준비 되었나

170일 파업의 끝은?

지난 5월 중순 어느 날 오전 한창 등교하는 학생들로 붐비는 신촌 대학가에 불 일이 있어 나도 학생들 틈에 끼어 걷고 있었다. MBC 노조원들이 몇 미터 간격으로 서서 유인물을 나눠주고 있었다. 나도 그들 곁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나는 빼놓고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이게만 나눠주었다. 늙은이라고 무시하는 듯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여 그들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전단에는 철창에 갇힌 김재철 사장과 철창살에 큰 수갑이 합성된 사진이 엮고 붉은 색 전단 아래 부분에는 “국민의 재산 도둑질한 비리사장 MBC 김재철을 구속수사하라!”라고 인쇄되어 있었다. 방송사 사장이 뭐길래 저런 곤욕을 치르나 하는 연민의 정을 느끼게 했다. 그때는 파업 100일을 조금 넘긴 시점이었다.

KBS 제2 노조도 동조파업하여 70여 일을 넘기고 있었지만 방송에 큰 차질이 없었고, 그 동안 하도 잦은 이런 저런 파업소식에 익숙한 터라 관심을 두지 않았으나 사장을 구속수사하라는 이 전단을 보고 MBC 파업이 쉽게 끝나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노조는 김사장이 2년간 법인 카드로 7억원을 부당 사용하고, 무용가 J씨를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건으로 사측은 3건의 고소·고발로 대응하고 있다. 이 문제는 사법부의 손에 이미 넘어 갔다. ‘공정방송 MBC 정상화’를 내세워 파업한 노조가 협상 당사자인 사장을 구속시키면 누구와 협상하자는 것인지, 공정방송 MBC 정상화는 사내에서 해결해야할 문제인데 왜 대학가에서 ‘희망 버스’식 여론몰이를 하는지 파업의 끝을 가늠할 수 없었다.

6월20일 TV조선 ‘시사토크 판’에 출연한 MBC 이진숙 기획홍보 본부장은 정치세력들이 MBC 파업을 정치적 싸움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우리나라처럼 방송의 파업이 잦은 나라는 찾아 보기 어렵다. 정권이 바뀌고 사장이 새로 임명될 때마다 반대와 파업이 되풀이된다. 새로 선임된 사장이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 하고 인근 호텔을 전전하며 회의를 하고 심지어는 회사 마당에 천막을 치고 회의를 주재하는 코미디같은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원인은 여야 대립 구도로 짜여진 공영방송사의 지배구조와 사장 선임에 개입하는 정치세력 때문이다.

파업 초기부터 파업동력이 약했던

KBS 2노조는 지난 6월7일 파업 94일만에 파업을 접었고, MBC도 8월초 새로 구성되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가 사장을 퇴진시킬 것으로 보고 지난 18일 170일만에 파업을 중단했다.

새 이사회로 공을 넘겼다고 하지만 현 지배구조로는 여야 정치권이 나설 수밖에 없다. 그동안 공정방송을 위해 방송이 독립

방송시평



정창기

·본보 편집위원
·전 KBS보도본부 기획보도실장

여야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 포기 전문성 강화 지배구조 개편해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주창해 왔지만 이번 파업은 결국 방송을 정치권의 손에 넘겨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손님’들은 떠나고

파업 초기에 많은 정치인들이 파업현장을 찾아와 주먹을 불끈 쥐고 각종 구호를 외치면서 파업을 독려하고 지지하는 뜨거운 장면을 연출했다. 소위 각종 시민사회단체의 방문과 열렬한 지지도 이어졌다. 그러나 소문대로 정치적 파업이었는데, 4월 총선 이후 서서히 정치권의 관심과 지지 열기가 식어감을 느낄 수 있었다. 6월 초에는 여야 개원협상의 조건으로 파업문제의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정치권을 압박했으나 그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추성춘 전 MBC 보도국장은 6월호 방송기자저널 특별기고문에서 “불길에 휩싸인 MBC에서 ‘손님’들은 이미 다 떠나갔다”고 총선 이후의 실상을 실감나게 표현했다. 흥행이 끝나면 손님들은 미련없이 떠나기 마련이다.

‘손님’들이 떠났다고 모든 상황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MBC 1,650여명의 사원중 파업에 참가한 770여명과 나머지 900여 사원간의 보이지 않는 감정의 골을 메우는 것과 파업과정에서 있었던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MBC에는 “사장에게 잘못 보이면 3년만 버티면 되고, 노조에게 잘못 보이면 30년 고생한다”는 말이 있다고 한

다. 이른바 MBC의 ‘노조체질’의 일면을 엿보게 하는 말이다. MBC의 미래를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이 시점에서 방송계 내부로 눈을 돌려 방송이 혹시 ‘손님’들을 불러들이는 상황을 만들지는 않았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하겠다. 그 동안 많은 방송인들이 국회로, 청와대로, 정치계로 진출했다. 공영방송이라는 방송

사의 노조위원장이 방송사 사장이 되기도 했다.

방송이 진정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을 원한다면 밖에서 오는 손님 뿐 아니라 우리안에 정치관을 기웃거리는 야심가는 없는지 경계해야 할 것이다.

여야 싸움터 공영방송이사회

공정방송을 위해 방송은 모든 권력으로 부터 독립해야 한다. 방송 교과서에도 있듯이 방송은 물적 제도적 기반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자본과 권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영국, 일본, 독일 등 공영방송을 표방하는 나라들은 정교한 법과 제도적 장치로 방송을 각종 권력으로부터 막아내고 있다.

공영방송의 모범으로 삼고 있는 영국 BBC의 구조를 보면 지난 2007년 개정된 칙허장(2016년까지 유효)에 따라 구성된 BBC 트러스트(경영위원회)는 지역대표 4인, 사회계층대표 6인과 정부가 추천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12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임기 5년인 이들 위원들은 공개 모집을 거쳐 장관이 임명하는 데 지역을 대표하기도 한다. BBC 지배 구조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공적 가치는 BBC의 독립성 유지와 불편부당성이다.

일본의 경우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NHK 경영위원회는 교육, 문화, 과학, 산업 등 각 분야의 4인과 지역을 대표하는 8인 등 12인으로 구성되며 국회의 동의를 얻어 총리가 임명한다.

정파적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특정 정당에 속한 자의 추천은 5명 이내로 제한한다.

독일 ZDF의 최고 기관인 방송평의회는 지역대표, 사회계층대표, 종교단체, 정부추천위원 등 총 77인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구성의 다원화는 공영방송 편성에서 의견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우리나라도 KBS 이사회와 MBC 방송문화진흥회의 구성방식은 외형적으로 해외 선진 공영방송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여야가 7대4 또는 6대4로 철저히 나눠 먹는 한국과 최대한 정당성을 배제하고 전문성과 지역대표성을 우선하는 해외 공영방송사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지금과 같은 KBS 이사회와 MBC 방송문화진흥회의 구조는 어떠한 합리적인 논의와 합의도 불가능하게 만들 뿐 아니라 여야 대리전의 싸움터로 만들고 있다.

낙하산 더이상 없게해야

다행히 현 제도의 병폐를 인식한 정치권 일각에서 여야가 KBS 이사와 방문진 이사의 추천권을 포기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어느 정치인의 말처럼 12월 대선에서 여든 아든 정권을 잡으면 생각이 달라질지 모르니까 어느 쪽이 대권을 잡을지 모르는 지금이야 말로 방송구조를 바꿀 수 있는 적기라고 하겠다.

KBS 이사회 구성에 대한 개선안으로는 2010년 11월 민주당 정장선 의원이 발의한 안과 지난 2월 현업 언론인과 언론 시민단체 활동가, 학자 등 73인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에서 만든 안이 있다.

정의원의 안은 12인의 위원 중 여야 동수로 4인씩 8인을 추천하고 나머지 4인은 전문성과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하도록 했다. 후자의 안은 위원을 11인으로 하고 여야 동수로 6인을 추천하고 5인은 시·도지사협의회가 추천한다. 어느 것도 완전한 안은 아니지만, 여야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현재의 방송지배구조를 바꿔 정치가 방송에서 손을 떼는 것이 공영방송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길이다.

여기에 덧붙여 낙하산이니 특보니 하는 사장이 더 이상 발 붙이지 못 하도록 사장의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여 정치권 관련 인물은 공영방송의 사장이 될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10면에서 이어집니다.

다리쪽 심한 통증 ... 치사율 높아

비브리오 패혈증의 특징은 임상경과가 빠르고 주로 다리 쪽에 심한 통증이 오며 치사율이 높다. 그러므로 여름철 가볍게 넘기기에는 무서운 질병이다.

비브리오패혈증에 걸리지 않으려면

다음과 같은 주의가 필요하다. 먼저 위장관질환이나 위산 억제제 복용환자는 어패류를 먹을 때 주의해야한다. 비브리오패혈증을 일으키는 균이 다른 균에 비해 산에 약하고 알칼리성에 강하기 때문이다. 또 피로가 많이 누적돼 있거나 만성 간 질환자, 알콜 중독자는 혈중 철 이온 농도가 증가해 체내 균 증식이 활발해질 수 있으므로 발병 우려

가 높다. 건강한 사람은 아무렇지 않을 수 있는 증상도 몸의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질병에 감염되면 증상이 더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

상처있으면 감염 위험

평소 건강에 문제가 없다고 해도 몸에 난 상처 등으로 감염될 수 있으므로 해안에서 낚시를 하거나 어패류를 손질

할 때 상처가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보는 게 좋다. 모래사장을 맨발로 걷는 것이 낭만적일 수 있겠지만 만일 상처가 있다면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을 위해서 피하는 것이 좋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4]

※ 이글은 하나로검진센터 오혜영 진료원의 자문을 받아 쓴 글임

溫故知新

만리장성 늘이는 중국의 속셈

중국이 만리장성의 길이를 계속 늘이고 있어 그 저의를 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 이 또한 동북공정(東北工程)의 일환으로 고구려사와 발해사 등 우리나라 고대사를 탈취하려는 역사 왜곡이요 낚조이기 때문이다.

지난 6월 5일 중국 국가문물국은 옛 고구려와 발해 영역이던 지린성(吉林省)과 헤이룽장성(黑龍江省)까지 만리장성이 연결돼 있었다고 발표했다. 또 공산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광명일보(光明日報)도 ‘국가문물국이 2007년부터 진행한 고고학 조사 결과 역대 만리장성의 총 길이가 2만 1196.18km라는 결론을 얻었다’고 6월 6일자로 보도했다. 이는 중국이 지난 2009년에 발표한 만리장성 길이의 배를 넘는 것이다. 중국 국가문물국은 이번 조사에서 만리장성 유적지 4만 3721곳을 새로 발견했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2006년 국무원 명의로 ‘장성 보호조례’를 제정하면서 만리장성에 대한 본격적인 보호와 연구 작업에 착수했다. 이후 중국 정부와 학계는 끊임없이 만리장성을 동서로 확장하는 낚조 공작을 지속해왔다.

그동안 만리장성은 동쪽의 허베이성(河北省) 천황다오시(秦皇島市)의 산해관(山海關)에서 서쪽으로 간쑤성(甘肅省) 가옥관(嘉峪關)까지 이어진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 이전에는 중국 학계에서도 만리장성의 동쪽 끝은 베이징 인근 산해관이라는 것이 정설이었다.

중국은 지난 2009년 랴오닝성(遼寧省) 단둥(丹東)의 고구려 산성 박작성(泊灼城)이 만리장성의 일부로 확인됐다면서 만리장성 길이가 기존까지 알려진 것보다 2500km 더 늘어난 8851.8km로 확인됐다고 주장했었다.

그 뒤에도 중국은 고구려 초기 도읍지인 백두산 근처 지린성 통화현(通化縣)에서 진한(秦漢)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만리장성 유적이 발굴됐다고 발표한 적이 있었다.

중국이 오래된 통설을 뒤집고 만리장성의 동단을 산해관이 아니라 압록강 하구인 라오닝성 단둥시 호산(虎山)이라고 주장한 데 이어 지린성 통화까지 고무줄처럼 늘인 것이다. 호산산성은 고구려의 대 중국 방어거점의 하나인 박작성으로 비정되는 곳이다. 중국은 호산산성을 만리장성의 기점으로 만들기 위해 산성을 증축하고, 역사박물관을 신축하면서 기존의 고구려시대 박작성 유적을 대거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쌓은 고구려 산성이 중국의 만리장성이라니, 이런 터무니없고 황당무계한 낚조도 다시 없다.

이뿐만이 아니다. ‘중국역사지도집’은 만리장성 동단을 한반도 내륙으로 그려놓았다. 또 웬만한 중국 역사박물관 지도에도 만리장성 동단을 황해도로 그려놓고 있으니 이처럼 어처구니

없는 일도 없다.

우리 사학계에서는 중국이 새로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만리장성 유적들이 기존 만리장성의 개념과 전혀 다른 명나라나 고구려의 유적들이라면서 중국의 역사왜곡을 비판하고 있다.

중국이 이처럼 끊임없이 만리장성 동쪽 끝을 고무줄 잡아당기듯 늘이는 저의는 결국 고조선·부여·고구려·발해의 영토였던 요서·요동·만주

가 모두 중국의 영토였고, 이 땅에 세워졌던 나라는 모두가 ‘중국 변방 소수민족의 지방정권’이란 궤변을 강조하려는 억지주장에 다름 아니다.

결국 이는 한국 고대사를 중국의 변방사로 격하시키려는 동북공정의 일환인 것이다. 중국의 집요한 한국사 왜곡과 탈취기도는 거의 편집광적이다. 고구려·발해사 왜곡도 모자라 이제 고조선·부여사까지 중국사에 편입시키려 하고 있다.

중국이 이토록 집요하게 황당무계한 역사왜곡과 낚조를 자행하는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중국사의 뿌리가 한국사보다도 짧기 때문일 것이다. 그동안 중국사의 시원(始原)은 황하문명설이 주류로 자리잡아왔었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요하·발해만 유역에서 기원전 7000~1500년의 신석기·청동기유적이 대거 발굴되었는데, 빗살무늬토기·비파형청동검 등 고조선문명의 대표적 특징인 유물이 대거 출토되었다. 특히 중국 측이 위기를 느낀 것은 기원전 1700~1100년대의 은허(殷墟) 유적보다 훨씬 오래 전의 갑골문(甲骨文)이 바로 이 지역에서 출토된 사실이다. 이는 고조선의 발해만·요하문명이 중국의 황하문명보다 앞섰다는 움직일 수 없는 반증이 되기 때문이다.

사실 중국이 고대사 왜곡·낚조와 탈취에 집착하는 데에는 중국사를 돌이켜볼 때 한족(漢族)의 역사는 별 볼일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한족이 세운 나라는 진과 한, 그리고 동진 이후 송과 명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중국이 자기 땅에 있던 나라의 역사가 모두 중국사라고 강변하는데 우리라고 해서 ‘중국사의 뿌리는 고조선사’라고 당당히 주장하지 못할 것도 없다. 고조선의 발해만·요하문명이야말로 황하문명보다 천년이나 앞선 고대문명이 아닌가. 중국의 역사왜곡·낚조의 밑바닥에는 중국이 천하의 중심이고, 주변국은 모두 오랑캐라는 오만한 중화사상과 중국공산당 일당독재의 역사패권주의가 도사리고 있다.

이에 대해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되겠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중국과의 역사전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역사교육을 강화하는 길 밖에는 없다. 우리 정부와 사학계도 자성하고 분발해야 한다. [필자]



황원갑

- 본회 회우
- 전 서울경제 문화부장
- 소설가
- 역사 연구가

본회 산악회 대공원 여름산행



서울대공원 삼림욕장 산행에 나선 회원들.

대한언론인회 산악회(회장 정운종) 회원 20여 명은 지난 7월 25일 서울 근교 산행지로 인기를 얻고 있는 대공원 삼림욕장에서 피톤치드를 마음껏 마시며 친목을 다졌다.

대공원 외곽 청계산 기슭을 따라

구성된 둘레길은 그늘진 숲길과 흙길로 완만한 산행로를 유지하고 있고 약수터와 쉼터가 여러 곳에 있어 여름산행지로 적격이었다. 하산 후엔 서울시내 한 음식점에서 즐거운 한담의 시간을 가졌다.

이혜복 회우 9순 축하연 열어



이혜복회우 구수연에서 흥원기 대한언론인회 회장이 ‘언론일로’ 휘호를 증정하고 있다. (우로부터 이혜복고문 부인 방봉세여사, 이혜복고문, 흥원기회장, 제재형고문, 신우식고문, 조창화 명예회장)

이혜복 본회 고문의 구수축하연이 지난 7월 7일 오후 6시 롯데호텔 36층 그랜드 벨뷰스위트룸에서 이혜복 선생 가족 초청으로 열렸다.

본회 임원도 다수 초청된 이날 축하연에서 대한언론인회 흥원기 회장

은 대한언론인회 회원을 대표해 유명한 서예가 남덕 한석봉선생이 쓴 ‘言論一路’ 휘호 액자를 증정했다. 제재형 본회 고문은 이날 정감어린 축사로 하객들을 감동시켜 박수를 받았다.

언론인 ‘별세소식’을 예우하라

7월1일자 ‘大韓言論’을 보면 모두 세분 언론인의 별세 소식과 조사(弔辭) 그리고 한분의 조사가 실렸다. 세분은 문제안(文濟安·92) 조동오(趙東午·82) 민규호(閔圭鎬·91) 원로언론인으로 6월에 작고했으며 한분 조동표(趙東彪·87)원로 회우는 5월에 떠났다. 대한언론인회 회우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별세 소식을 몰랐거나 ‘大韓言論’을 보고서야 비로소 알았다

우리 언론계 집안 이야기라 크게 말할 수 없을는지 모르지만 ‘너무하다’ 싶어 여기 조그마한 문제를 제기한다. 우리 언론은 선배 언론인에 대한 예우가 너무 소홀한 것 같다.

92세로 떠난 문제안 선생은 1945년 대한민국 최초의 방송기자로 활동했으며 6·25 전쟁 때는 중군기자로 활약했다. 조동오 선생은 1954년 언론계에 투신, ‘법조기자의 전설’로서 사회부장 편집국장을 거쳤다.

민규호선생은 1945년부터 신문에 몸담아 법조기자로 이름을 떨쳤으며 사회부장 편집국장을 지냈다. 조동표 선생은 1세대 스포츠기자·평론가로서 80대후반 작고하기 얼마전까지 스포츠경기 현장에 나타났던 ‘영원한

스포츠 기자’였다.

이렇게 40년이상이나 언론에 몸바친 ‘언론박에 모르는’ 선배 언론인을 후배 언론인은 왜 외면하는가. 무조건 선배 대접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 뉴스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달라는 이야기이다. 국회의원 4년을 지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망기사는 사진과 함께 다루어진다. 관존민비(官尊民卑)도 아니고 뭐란 말인가.

그래도 문제안선생은 몇 신문이 사진과함께 예우를 했다. 6월18일자를 보면 서울신문(서울신문 6·25중군기자 문제안씨 별세) 조선일보(6·25중군기자로 활약... 한국 첫 방송기자 문제안 별세) 중앙일보(부고-국내 첫 방송기자 문제안씨)등이다.

동아일보는 부고란에, 국민일보는 아들 부친상으로 다루었고 그밖의 신문들은 묵살했다. 경향신문은 이 날 ‘사우디아라비아 왕위계승 서열1위



신우식

·본회 고문
·전 서울신문 사장

왕세자 사망’ 기사를 사진과 함께 크게 다루었다. 조동오선생은 편집국장을 지낸 중앙일보만 사진과 함께 기사를 썼고 그밖의 모든 신문이 ‘부고’ ‘부음’ 또는 ‘굿간소식’으로 소식을 알렸다. 조동표선생은 국장을 지낸 한국일보(당신은 영원한 스포츠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1세대 스포츠평론가 조동표씨 별세)만이 사진과 함께 크게 별세 기사를 실었고 그밖의 신문들은 부고란에 썼다. 민규호선생은 신문에 별세 소식이 한줄도 나오지 않았다. ‘大韓言論’의 별세소식을 보고 놀란 사람이 많았다.

우리 신문사들은 전통적으로 서로 사이가 좋았다. 그래서 옛날 신문들을 뒤적이다 보면 ‘동업(同業) XX신문사에서는 무슨 무슨 대회를 여는 바...’ 라는 기사가 자주 나온다. 이 미풍(美風)은 A신문사와 B신문사가

서로 으르렁대다가 깨졌다는 설이 있다. 그 ‘동업신문사’의 소식을 묵살하다보니 ‘원로언론인 별세’까지 묻게 버리는게 아닌가 싶다..

긴 말이 필요없다. 후배 언론인들이여! 한국언론사(史)를 열심히 공부하라. 어떤 선배언론인들이 이 땅의 언론을 위하여 어떤 역할을 했으며 어떻게 헌신했는가 살펴 보기 바란다. 그래야만 ‘언론인 별세’소식에 감이 잡힐게 아닌가. 뿌리없는 나무는 없다.

여기 대한언론인회 회우 여러분께 한마디 제안하고 싶다. 내가 아는 선배 한분은 ‘나에게 무슨 일이 있거든 이 사람들에게 연락하라’고 명단을 적어주고 새해 첫머리에 그 이름을 다시 고친다고 들었다. 여러분도 유고시(有故時)에 대비하여 자녀나 친지에게 대한언론인회에 연락하도록 장치를 마련했으면 한다.

대한언론인회는 원로 언론인의 별세소식을 통보받으면 전 회원에게 즉각 알리고 언론사 ‘사람’ 담당자에게 별세 기사를 통보하고 있다. 또한 대한언론인회는 회원들이 모여 ‘언론인장’으로 추도식을 올리고 있다. [4]

최병욱 원로 회우 별세

최병욱 원로회우가 7월 22일 별세했다. 향년 90세, 고인은 1922년 11월 14일 서울에서 태어나 1948년 국제신문사 기사를 시작으로 언론계에 진출했다. 그후 대한일보 전시판 편집부장, 평화신문사 편집부장, 연합신문사 편집부국장, 서울경제신문 편집



고 최병욱 회우

부국장, 한국일보 편집위원, 서울신문 편집부국장, 현대경제일보 편집국장, 경향신문 논설위원, 경기일보 비상임 논설위원 등을 역임했다.

고인은 특히 대한언론인회 초창기

부터 회보편집 책임을 맡아 부회장을 그만둘 때까지 10여년 간 편집실무에 직접 참여했다. 슬하에 몇해 전 사별한 박옥자씨와의 사이에 중경(외과의사)로 개인 병원경영, 중용(이대 목동병원 교수), 규북(이대 목동병원 의사)등 3남 2녀를 두었다.

대한언론인회는 7월 25일 오후 6시 이해복 고문, 홍원기 회장, 정기정 부회장, 정운중 상임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추도식을 갖고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4]



고 최병욱 회우 빈소에 홍원기 회장이 조문하고 있다.

弔辭

고 최병욱 선생 영전에

김관태 (본회원로회우·박물관 도슨트)

최병욱 형 !

무엇이 그리 급하시다고 훌쩍 떠나셨습니까. 천하가 공인하는 만능의 신문인이요, 두주불사의 다재다능한 낙천가 최형이 아니었는지요.

망연자실. 그저 머리 숙여 명복을 빌 뿐입니다.

최형을 처음 만난 것은 1952년 겨울. 인현동 동사무소 자리에 있던 평화신문사였지요, 정치, 사회, 편집, 교정 모두 합쳐야 15명 내외가 편집국 식구 전부였지요. 신문이라야 덜거덕 거리는 평판 한 대에 타블로이드판 네 쪽 발행이 전부였습니다. 수복직후라 고정 독자라고는 눈을 씻고 봐도 없었기에 길가는 사람들에게 전단 뿌리듯 나누어 준 것이 전부일 때입니다. 편집국에 3박이 있었지만 그 중에도 단연 최형이 우두머리였고요.. 그 3박도 이제는 단 한 사람이 남았을 뿐입니다.

1946년 학생신문사를 창간. 주간 겸 편집국장으로 언론계에 처음 발을 들여 놓으셨습니다. 그 후 국제 평화 연합 서울경제 한국 서울 현대경제 경향을 두루 거쳐 경기일보를 창간, 논설위원을 끝으로 1988년 민주언론의 참병으로 사회정의의 수호에 헌신, 42년간의 현역을 마감했지만 타고난 부지런함과 친화력은 현역 퇴임 후에도

유감없이 발휘, 후진들에게 우의를 다지게 한 큰 어른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평화신문사 퇴직 사원의 친목단체 平友會를 만들었고, ‘京畿道史’를 집필 편집하였고, 경향신문 ‘餘瀾’에 10여년 간 논설을 게재 했지요. 물론 대한언론인회에서도 편집담당 윤영위원과 부회장직을 수차 연임하면서 10여년간 회무에 관여하셨습니다. ‘온고지신’을 비롯 ‘미니회고록’ 등은 모두 최병욱형의 제안으로 붙여진 이름이고 최병욱형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대한언론상’은 지금도 꾸준히 명예로운 상으로 시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의사 아들 삼형제의 훌륭한 효도와 간병도 보람 없이 굳이 뿌리치고 멀리 떠나신 최형, 우리 후배들도 곧 따르게 될것이니 미리 자리잡고 이승에서 못다한 이야기나 한풀이를 실컷 해주시기를 빕니다. 생전에 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좋은 글을 되돌려 드리오니 부디 영생하소서...

空手來 空手去 하니/
世上事 如浮雲 이요/
成墳墓 人散後 하니/
山寂寂 月朗朗 이라 [4]

회우동정

가나다순

‘미디어 생태계의 미래’ 출판



강홍식(21세기 방송통신 연구소 이사장)회우= 6월 8일 21세기 방송통신 연구소는 프레스센터에서 격변하는 미디어 환경과 미래를 진단하는 세미나를 열고 논문집 ‘미디어 생태계의 미래’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서예문인화 원로총연합회전 작품



박관흠(10,11,12대 국회의원·사진위)·손일근(서울대총동창회 상임부회장·가천대 초빙교수·사진아래)원로회우= 7월 12~17일 서울시립미술관 경희궁 제1전시실에서 열린 제7회 대한민국 서예문인화 원로총연합회전에 명예회원으로 작품.

밀성 박씨 대종회 부회장에



박문두(동우회 총무이사·전 동아일보 영남 취재본부 부장대우) 회우= 최근 밀성 박씨 전국군과 대종회 정기총회에서 대종회 수석부회장으로 재선출 됐다.

사무실 이전



서병주(전 KBS 라디오본부장)회우= 최근 서울 금천구 가산동 371-28 우림라이온스 밸리 A-507호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언론중재 시정권고 위원에



어경택(전 동아일보 편집국장)회우= 최근 열린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시정권고위원으로 선임.

대표칼럼 1300여회 집필



오동환(전 경향신문 논설위원)회우= 경인일보 대표칼럼 '참성단'을 책임지고 있는 오동환(72)객원논설위원이 지난 7월 12일자로 참성단 1천 300회를

집필했다. 오 회우는 지난 1987년부터 지금까지 25년동안 여러 신문사의 논설위원으로 활동하며 경향신문의 '여적'을 비롯해 3천회의 칼럼을 쓴 기록을 세웠다.

신아일보 논설실장



이규섭(전 국민일보 논설위원)회우= 7월 12일자로 신아일보 논설실장에 취임. 이 회우는 본회 대한언론 편집위원으로 많은 글을 기고했다.

시·군대항 바둑대회에서 우승



정기정(전 MBC감사) 본회 부회장= 지난 6월 30일 재경 경남향우회가 한국기원에서 주최한 시·군 대항 바둑대회에서 개인전 우승으로 노익장을 과시. 정 부회장은 아마 5단으로 본회 기우회 회장을 맡고 있다.

이승만 주간 선포식 참석



박설(사진 위)·손세일 회우(사진 가운데)·제재형 고문(사진 아래)= 6월 24일 충청북도(지사 이시종)주최로 청원군 문의면 소재 대통령별장 청남대에서 거행된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 주간 (24~29일) 선포식’에 참석했다. 제 고문은 ‘우남 이승만기념사업회’ 이사로 활동 중이다.



미 CBS 뉴스 본사 회의 참석차 도미



한영도(미 CBS 뉴스 지국장)원로회우= 미 CBS 뉴스 본사 회의 참석차 8월 4일부터 1개월간 미국방문.

신간도서 기증

제재형 본회고문은 ‘고려대학교 4·18의거 실록’ (신국판 592면 고대출판부 간 값 3만원)

언론가 소식

한국일보 지령 2만호 기념 리셉션

한국일보 지령 2만호를 기념하는 리셉션이 지난 7월 19일 오후 6시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렸다.

한국일보는 또한 지령 2만호에 맞춰 김황식 국무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차이나 포럼(China Forum) 2012’를 개최했다. 한중수교 20주년을 맞아 열린 이번 포럼에는 국내외 석학과 기업인,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수교 이후 두 나라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해왔으며 급변하는 동북아 질서 속에서 양국의

좌표가 어떻게 설정돼야 하는지를 놓고 심도 있는 토론을 벌였다.

서울신문 이철취사장 선임



서울신문사는 지난 7월 18일 주주총회를 열고 제30대 사장에 이철취(李哲微) 전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사진)을 선임했다. 행시 17회인 이 서울신문사장은 재정경제부 공보관, 국고국장 등을 역임했다.

사우회 소식

사우회 활성화 방안 모색

경향신문

경향신문 사우회 김명수 신임회장(본회 회우)은 취임이후 임원진을 개편하는 한편 사우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1차로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서 김경래 지용우 이형균 역대회장을 초청, 간담회를 갖고 자문을 구했다.

신임 회장에 김문진씨

서울신문

서울회(서울신문·스포츠토토 전직사우회)는 3월 15일 정기총회를 열고 제3기 신임 회장에 김문진(전 서울신문 사장직무대행·사진)씨를 만장일치로 선임했다. 김 회장은 1940년 충남 천안 출생으로 65년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신문 11기로 입사, 사회부장 편집국장 전무이사 등을 역임했다.

동양라디오 개국 48주년 자축

중앙매스컴

중앙매스컴 사우회(회장 김재봉)는 지난 5월

동양라디오 개국 48주년을 맞아 이를 자축하는 동우회 모임을 갖고 빼앗긴 동양라디오를 되찾을 길이 없는가를 진지하게 검토했다. 사우들은 이날 동양 TV방송은 현재 종편방송이란 형식으로 되찾았지만 라디오는 아직도 빼앗긴 채 KBS에서 방송되고 있다며 아쉬워했다.

임원진 춘천 단합대회

한국경제

한국경제 동우회(회장 엄영섭)임원진 20여명은 지난 6월 25일(월) 강원도 춘천에서 2012년 하반기 단합대회를 갖고 내년도 사업계획 등 동우회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한 뒤 소양강 댐과 춘천호수 등을 둘러봤다.

사우회 창립 23주년 기념행사

KBS

KBS사우회(회장 강대영)는 지난 6월 13일 창립 23주년을 기념해 평택 제2함대사령부내 천안함 안보체험과 아산 현충사 참배 등 호국보훈 정신을 기리고 회우 간 친목을 다졌다. 이날 행사에는 사우회 창립 이래 최대규모인 3백여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루었다.

대한언론인회 상반기 회계감사

대한언론인회 사무국은 지난 7월 10일 2012년도 상반기 회계감사를 받았다. 김호기 송효빈 두 감사에 의해 실시된 이번 감사는 2012년도 상반기 수입지출 현황을 세목별로 철저히 감사했다. 총 1454,195,166원에 이르는 정기예금현황과 운용자금 60,861,697원의 투

명한 집행을 감사한 결과 “대한언론인회의 재정이 매우 건전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 상반기 감사에서 특별히 관심을 끈 것은 치밀한 기획과 적극적인 광고 수주활동으로 대한언론인회보 제작비 21,206,832원을 전액 광고비로 충당할 수 있었던 점이었다.

신입회우 환영합니다



구자건(具滋健)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 1동 달빛마을 401-1204 중랑대 경제과 졸 서울신문 입사(71) 경향신문(75) 동 종합편집부장(87) 동 편집부국장(90) 문화일보 편집전문위원(국장급) 한국대학신문 주간(2007)



원종선(元鍾善)

1945년 11월 8일생 (010-2220-5164) 서울 서초구 양재동 남부순환로 2614 한솔로 이젠트 아파트 1301 전북대 농과졸 한국일보 입사(73) 경향신문 편집부(81) 한국 편집기자협회 27대회장(89) 문화일보 편집부국장(94) 새전북신문 편집국장(2002)

▶ 결혼 ◀

이영일회우= 7월7일 (토) 오후7시 롯데호텔(잠실) 3층 크리스탈 볼룸에서 막내딸 결혼

연회비 내주신 분 감사합니다.

농협 056-01-105628 대한언론인회 (가나다순·괄호안 납입연도)

안종우(12,13) 신광식(11,12)
손일근(12) 지정식(12)
서병주(12) 한건주(11)

月刊 大韓言論

· 발행인 겸 편집인 洪元基
· 인쇄인 李榮一
· 상임이사 겸 사무총장 鄭雲宗
· 주필 文明浩
· 편집위원장 成樂五
· 광고국장 黃貴根
· 발행처 (우)100-745 서울중구 태평로1가 25 프레스센터 1405호
등록번호 서울 라 12013
· E-mail : kjc1405@hanmail.net
· 홈페이지 www.kjclub.or.kr
· ☎ 02)732-4797/4798 02)2001-7621
· Fax. 02)730-1270
· 편집제작실 02)2273-4253 드림프랜드

2012 여수세계박람회에서
포스코를 만나보세요

*아는 만큼 가까워집니다 캠페인은 대한민국 모두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포스코의 새로운 캠페인입니다

NAVER + Mobile 아는 만큼 가까워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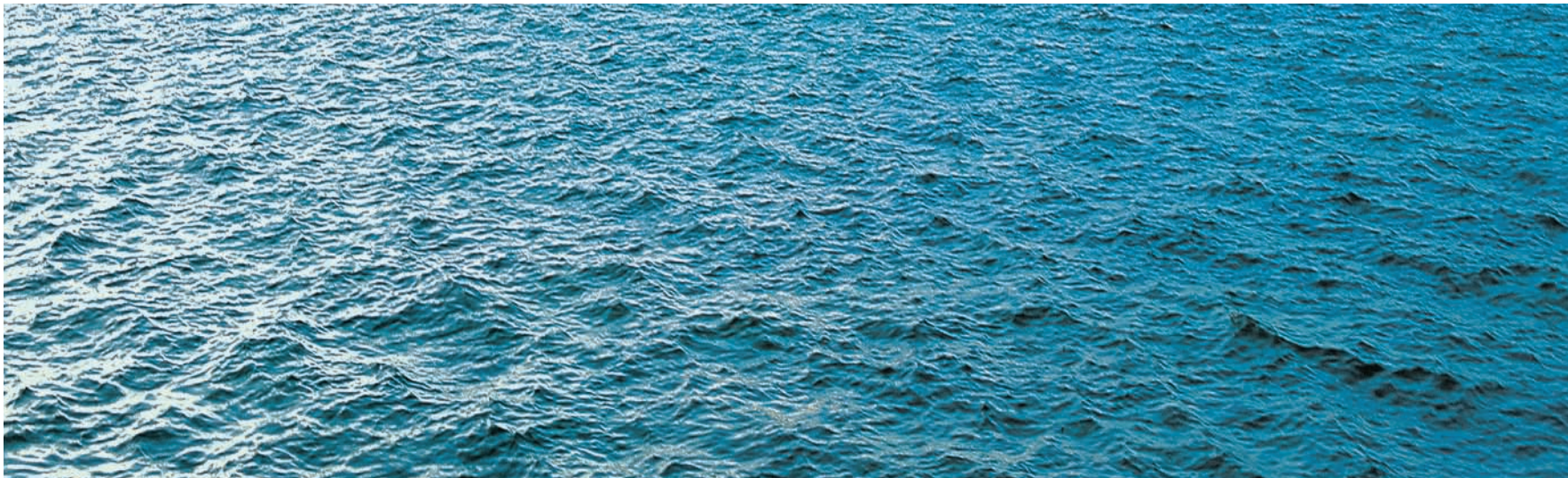
아는 만큼 가까워집니다

가족과 가족, 친구와 친구, 선배와 후배, 이웃과 이웃...
수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서로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요?
안다는 것, 소통의 시작입니다
사소한 것부터 대화를 나누며 마음의 거리를 좁혀주세요
알게 되면 이해하게 됩니다. 알게 되면 통하게 됩니다

posco
아는 만큼 가까워집니다



한순간도 쉬지않는
바다처럼,



더 큰 가능성을 향해 도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에너지화학, 정보통신 그리고 반도체까지
지금까지의 수출과 기술을 넘어, 세계를 이끌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We Lead the Globe **OK! SK**
세계를 이끄는 대한민국의 힘



메모리 반도체 세계 2위
매출 약 95% 수출



최근 5년 누적 수출 100조 달성
무자원 산유국 꿈 실현



IT 신기술 개발 등
혁신을 통한 정보통신 강국 구현